

# G-20 정상회담의 평가와 우리의 과제

2009년 03월

최근 경제동향  
국내경제전망  
이슈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G-20 정상회담의 평가와 우리의 과제

2009. 3.

한국경제연구원

## 집 필 진

선임연구위원	조 경 엽
연 구 위 원	이 태 규
연 구 위 원	김 필 현
연 구 위 원	변 양 규
부 연 구 위 원	설 윤
부 연 구 위 원	김 창 배

< 차례 >

요 약	v
<b>제 I 장 최근 경제동향</b>	<b>1</b>
1. 실물경제	3
2. 물가	19
3. 노동시장	22
4. 금융시장	28
5. 외환시장	38
6. 해외경제	44
<b>제 II 장 국내경제전망</b>	<b>55</b>
1. 대내외 여건	57
2. 2009년 경제전망	62
<b>제 III 장 이슈분석: G-20 정상회담의 평가와 우리의 과제</b>	<b>71</b>
1. G-20 정상회담의 배경	73
2. London G-20 정상회담의 목표 및 주요 의제	75
3. 런던 G-20 정상회담까지의 과정	80
4. G-20 정상회담의 성과 및 주요 내용	87
5. G-20 정상회담의 평가 및 우리의 과제	90
부 록	97

< 표 차례 >

<표 I-1> 지출항목별 증가율.....	4
<표 I-2> 지출항목별 기여도 .....	5
<표 I-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	7
<표 I-4> 소비 .....	9
<표 I-5> 투자 .....	12
<표 I-6> 품목별 수출 .....	14
<표 I-7> 지역별 수출 .....	15
<표 I-8> 용도별 수입 .....	16
<표 I-9> 국가별·용도별 수입 .....	17
<표 I-10> 최근 경상수지.....	18
<표 I-11> 물가 추이 .....	21
<표 I-12>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22
<표 I-13> 취업자 추이.....	26
<표 I-14>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	27
<표 I-15>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	28
<표 I-16> 주요 금리 현황.....	32
<표 I-17>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33
<표 I-18> 기업 자금조달 추이 .....	34
<표 I-19> 은행의 가계대출 .....	35
<표 I-20> 주요 금융기관 수신 현황.....	36
<표 I-21> 주식시장 주요 지표 .....	38
<표 I-22> 원/달러 환율 .....	39
<표 I-23> 자본 유출입 추이 .....	43
<표 I-24> 미국의 경제지표 .....	44
<표 I-25> 일본의 경제지표 .....	45
<표 I-26> EU의 주요 경제지표 .....	46
<표 I-27>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47

〈표 I-28〉 각국의 경기부양대책·····	48
〈표 I-29〉 유가 및 CRB지수(기말기준)·····	53
〈표 II-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	58
〈표 II-2〉 전망의 주요 전제 ·····	61
〈표 II-3〉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64
〈표 II-4〉 2009년 국내경제전망 ·····	69
〈표 II-5〉 2009년 추경 주요 내용·····	70
〈표 II-6〉 세출증가 17조7천억 원의 거시경제 효과 ·····	70
〈표 III-1〉 워싱턴 액션 플랜(Washington Action Plan)의 주요 내용 ·····	74
〈표 III-2〉 G-20 Working Group별 과제 및 의장단 ·····	76
〈표 III-3〉 최근 주요국들의 보호무역 동향·····	78
〈표 III-4〉 최근 발생한 금융보호주의 사례·····	79
〈표 III-5〉 EU 주요국들의 최근 정상회담 내용·····	82
〈표 III-6〉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담의 합의 내용 ·····	86
〈표 III-7〉 IMF 쿼터 순위·····	95

<그림 차례>

<그림 I-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	4
<그림 I-2> 생산증가율 추이 .....	6
<그림 I-3> 소비증가율 추이 .....	9
<그림 I-4> 투자증가율 추이 .....	11
<그림 I-5> 최근 수출 추이 .....	13
<그림 I-6> 최근 수입 추이 .....	16
<그림 I-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	20
<그림 I-8> 노동시장 주요 지표 추이 .....	25
<그림 I-9> 시장금리 추이 .....	30
<그림 I-10> 신용스프레드 추이 .....	30
<그림 I-11> 외평채 가산금리 및 CDS 프리미엄 추이 .....	31
<그림 I-12> 주가지수 추이 .....	37
<그림 I-13> 주요 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이 .....	41
<그림 II-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	63
<그림 II-2> 경상·자본수지와 원/달러 .....	68
<그림 III-1> G-20 Working Group 합동운영위원회 체제 .....	77

## I. 최근 경제동향

- 2008년 4/4분기 국내총생산, 외환위기 이후를 제외하고 최대폭으로 감소
  - 전기대비 -5.6%는 외환위기(1998년 1/4분기 -7.8%) 이후 최저 증가율
    - 전년동기비: 5.8%(2008년 1Q) → 4.8%(2Q) → 3.8%(3Q) → -3.4%(4Q)
- 제조업 생산 감소세 확대, 서비스 생산 감소세는 다소 진정
  - 제조업: -14.5%(2008년 11월) → -20%(12월) → -27%(2009년 1월)
  - 서비스업: -1.5%(2008년 11월) → -1%(12월) → -0.9%(2009년 1월)
- 소비는 지난해 4/4분기 큰 폭 하락 이후 올 1월에도 부진 지속
  - 도소매 판매: 4.2%(2008년 3Q) → -4%(4Q) → -6.7%(2009년 1월)
  - 소비자재 판매: 1.4%(2008년 3Q) → -4.6%(4Q) → -3.1%(2009년 1월)
- 설비투자 및 국내기계수주 감소세 확대
  - 지난해 3/4분기 5.3% 증가에서 4/4분기에는 16.2% 감소, 올 1월에는 -25.3%로 감소세 확대
    -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지난해 4/4분기 이후 감소세 확대
- 건설기성, 지난해 4/4분기 감소(-2.2%)에서 올 1월에는 증가(2%)로 반전
  - 민간건설 부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이 SOC사업 및 예산조기 집행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27.7%)한 데 기인



■ 수출, 세계경기침체로 큰 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소세는 점차 완화

- 수출감소세가 지난해 4/4분기 -9.9%에서 올 1~2월 중에는 약 -25%로 확대되었으나 월별로는 소폭 개선조짐
  - 1월 수출증가율은 -33.8%, 2월에는 -17.1%
  - 일평균 수출액은 소폭 개선[11.3억 달러(2008년 12월) → 9.9억 달러(2009년 1월) → 11.8억 달러(2월)]

■ 국제유가 하락, 국내수요 위축 등으로 수입 감소세 확대

- 수입 증가율: -21.6%(2008년 12월) → -31.9%(2009년 1월) → -30.9%(2월)
  - 일평균 수입금액도 2008년 12월 중 11.1억 달러, 2009년 1월 중 11.5억 달러, 2월 중 10.5억 달러로 감소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세적 하락세

- 올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환율 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세적 하락세는 지속
  - 소비자물가: 5.5%(2008년 3Q) → 4.5%(4Q) → 3.9%(2009년 1~2월)

■ 내수 및 수출부진 심화에 의한 전반적인 고용사정 악화. 특히 청년층,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의 고용 감소 확대

- 고용사정 악화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양상
  - 취업자 수 감소: -10만3천 명(2009년 1월) → -14만2천 명(2월)
  - 특히 청년층(15~29세), 30대, 임시직 근로자 및 자영업주 감소세 확대
- 실업률 본격 상승하고 비경제활동인구도 급증
  - 실업률 1월 3.6%로 상승한 이후 2월에도 3.9%로 0.4%p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는 1월 50만6천 명 증가, 2월 50만9천 명 증가(2008년 평균 29만7천 명)

- 실질적 무직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취업준비자+휴직자+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는 2009년 2월 358만4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7만4천 명 증가. 이는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의 9%에 해당

■ 기준금리 인하, 양적팽창 정책 등에 힘입어 시장금리 하락세

- 회사채 수익률은 풍부한 시장유동성과 함께 우량물에 대한 투자자의 매수세 확대로 큰 폭의 하락세
  - 기준금리 인하: 4% → 3%(2008년 12월 11일) → 2.5%(2009년 1월 9일) → 2%(2009년 2월 12일) → 2%(3월 동결)
  - 회사채 유통수익률(AA- 기준): 7.72%(2008년 12월 말) → 7.29%(2009년 1월 말) → 6.60%(2009년 2월 말) → 6.02%(2009년 3월 24일)

■ 금융위기 재발 및 경기침체 심화 우려 등으로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들어 해외여건 개선 및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진정

- 원/달러 환율: 1,257.5원(1월 2일) → 1,344.6원(1월 15일) → 1,391원(1월 28일) → 1,573.6원(3월 3일) → 1,399.3(3월 23일)

## II. 국내경제전망

### 1. 대내외 여건

#### ■ 대외여건

-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 침체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 마이너스 성장
  - IMF(2009년 3월 전망):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  $-1.0\sim-0.5\%$
- 국제유가, 연평균 약 55달러(두바이유 기준) 수준에서 안정
  - 세계경제 회복 여부가 변수인데 회복세가 크지 않을 전망이어서 국제유가 오름폭도 제한적 수준에 그칠 전망

#### ■ 대내여건

- 정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감세 및 재정확대 정책
  - 2008년 9월, '2008 세제개편안' (5년간 21조3천억 원 감세)
  - 2008년 11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지출확대 11조 원, 세제지원 3조 원 등)
  - 2009년 2월,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미분양주택 해소, 일자리 나누기 및 사회안전망 확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등)
- 기준금리, 인하요인과 인상요인이 혼재되면서 현재수준(2%) 동결 가능성
  - 인하요인: 과도한 경기 위축 방지
  - 인상요인: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 대내외 금리차 축소에 따른 환율 불안 가능성 등

- 대내외 여건을 감안한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표 1〉 전망의 주요 전제

외생변수	단위	2008년	2009년
CALL(기준금리, 기말)	%	3.00	2.00
ER(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1.3	1300.0
GDPCH(중국 성장률)	%	9.0	6.7
GDPJP(일본 성장률)	%	-0.7	-5.5
GDPUS(미국 성장률)	%	1.1	-2.5
OIL\$DUBAI(두바이)	\$/bbl	96.8	55.0

## 2. 2009년 경제전망

■ 성장률, 2008년 2.2% ⇒ 2009년 -3.7%

- 성장률 급락은 소비 및 설비투자 부진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의 큰 폭 감소에 기인
  - 다만 반기별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및 국내 경기부양 노력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전망(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5.3%, 하반기 -2.1%)
- 민간소비: 2008년 0.9% ⇒ 2009년 -3.9%
  - 민간소비는 고용악화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 자산시장 하락, 가계대출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연간 -3.9%의 감소세를 보일 전망
- 건설투자: 2008년 -2.1% ⇒ 2009년 -1.1%
  - 경기침체에 따른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수요의 부진으로 건설투자는 부진할 전망. 하지만 공공부문의 SOC투자 확대가 민간건설의 부진을 일부 상쇄하면서 감소세는 소폭에 그칠 전망
- 설비투자: 2008년 -2% ⇒ 2009년 -11.2%
  - 설비투자조정압력 감소, 60%대로 추락한 제조업평균가동률, 국내기계수주 감소

등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설비투자 부진 예상

■ 경상수지 대폭 흑자, 2008년 64억 달러 적자 ⇒ 2009년 128억 달러 흑자

- 국제유가 하락 및 국내수입수요 위축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큰 폭 흑자로 전환
  - 또한 경기 위축 및 고환율 등으로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도 개선

■ 수출(국제수지기준, 달러)증가율 급락, 2008년 14.4% ⇒ 2009년 -16.4%

- 국제금융불안과 세계경기 침체 기조가 확대되면서 올해 수출 큰 타격
  - 중국과 EU 등 대부분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부터의 해외수요 대폭 감소

■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2008년 4.7% ⇒ 2009년 2.4%

-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하향안정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 하향 안정추세는 지속될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가 2009년 중 급속히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국내외 수요위축으로 인한 원유 및 원자재가격이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 수입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인 원/달러 환율도 점진적 하향 안정세 예상

■ 시장금리 하락, 2008년 7.1% ⇒ 2009년 6.5%

- 세계적인 금리하향 추세, 양적팽창 등으로 시장금리는 하락압력을 받을 전망
-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리스크,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구축효과 등은 금리하락을 제약하는 요인들로 작용
  - 한은의 정책금리도 현재의 2%에서 추가 인하 여지가 적은 상황

■ 원/달러 환율 하향안정세, 2009년 상반기 1,380원 ⇒ 하반기 1,220원

- 국제유가 안정 및 내수 위축 등에 따른 수입감소로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상반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불확실성도 점차 해소되면서 환율은 빠르게 안정될 가능성

〈표 2〉 2009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4	2/4	3/4	4/4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5.1	4.9	-0.3	2.2	-5.3	-5.6	-5.4	1.5	-5.3	-2.1	-3.7	
(SA, 전기비%)					-0.2	0.4	0.3	0.9				
민간소비	5.1	3.1	-1.2	0.9	-5.0	-5.7	-5.2	0.2	-5.3	-2.5	-3.9	
건설투자	1.4	-1.0	-3.0	-2.1	-3.3	-1.6	-1.1	0.9	-2.3	0.0	-1.1	
설비투자	9.3	1.3	-5.2	-2.0	-18.8	-16.4	-13.6	5.9	-17.6	-4.4	-11.2	
수출(재화+서비스)	12.6	11.3	0.7	5.7	-14.2	-14.3	-11.2	1.4	-14.3	-5.0	-9.7	
수입(재화+서비스)	11.7	9.3	-1.6	3.7	-20.9	-18.7	-13.8	5.2	-19.8	-4.7	-12.4	
소비자물가	2.5	4.2	5.0	4.7	3.8	2.2	1.5	2.3	3.0	1.9	2.4	
생산자물가	1.4	7.0	10.0	8.6	4.5	0.1	-2.4	1.4	2.3	-0.5	0.9	
경상수지(억 달러)	59.5	-53.5	-10.6	-64.1	75.1	30.4	4.2	17.9	105.5	22.1	127.6	
상품수지(억 달러)	294.1	45.0	14.9	59.9	85.0	68.2	49.0	44.0	153.2	93.0	246.2	
수출(억 달러, BOP 기준)	3,789.8	2,211.6	2,122.6	4,334.3	806.0	912.8	941.0	965.0	1,718.8	1,906.0	3,624.8	
증가율%	14.2	23.3	6.3	14.4	-21.7	-22.8	-19.7	1.5	-22.3	-10.2	-16.4	
수입(억 달러, BOP 기준)	3,495.7	2,166.6	2,107.7	4,274.3	721.0	844.6	892.0	921.0	1,565.6	1,813.0	3,378.6	
증가율%	15.5	30.2	15.0	22.3	-30.7	-25.0	-26.1	2.2	-27.7	-14.0	-21.0	
서비스 및 기타수지	-234.6	-98.5	-25.5	-124.0	-9.9	-37.8	-44.8	-26.1	-47.7	-70.9	-118.6	
환율(원/달러, 평균)	929.2	987.5	1,215.2	1,101.3	1,420.0	1,340.0	1,240.0	1,200.0	1,380.0	1,220.0	1,300.0	
회사채수익률(3년, AA-)	5.7	6.4	7.8	7.1	6.8	6.2	6.4	6.5	6.5	6.5	6.5	
실업률(%)	3.2	3.3	3.1	3.2	3.7	3.6	3.5	3.5	3.7	3.5	3.6	

■ 올 3월에 발표한 추경(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성장률이 약 1.1%p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추경 28조9천억 원 중 세출증가 17조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sup>1)</sup>는 다음과 같음.
  - 성장률 1.1%p 제고, 소비자물가 0.2%p 상승, 경상수지 흑자 약 27억 달러 감소

〈표 3〉 세출증가 17조7천억 원의 거시경제 효과

구 분	기본전망(A)	예상효과(B)	A+B
성장률	-3.7%	+1.1%p	-2.6%
경상수지	128억 달러 흑자	-27억 달러	101억 달러 흑자
소비자물가	2.4%	+0.2%p	2.6%

### 3. 이슈분석: G-20 정상회담의 평가와 우리의 과제

■ 런던 G-20 정상회담에서 정책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 단점

- 정상회담 이전 각종 사전 회담 등을 통해 상당 부분에 대해 의견조율이 이루어졌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특히 경제회복을 위한 지출 규모와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무역금융 및 개도국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규모 등이 제시된 것이 큰 성과
  -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한 일정에 합의한 것도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
- 정책방향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행계획 및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이어서 불확실성을 내포
  - 추후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나 사안에 따라 각국의 경제사정 및 이해가

1) 정부는 세출증액 17조7천억 원의 효과를 성장률 약 1.5%p 내외로 전망

달라 합의된 금융 지원규모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음.

- IMF의 의결권 배분 등과 같은 제로섬 성격의 쟁점의 경우 상당기간 동안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중요한 글로벌 이슈를 G-20 체제 내에서 논의하기 위해 G-20 정상회담의 제도화가 필요

- 현재 글로벌 이슈에 관한 국제회의체제(G-13, G-16 등) 중 우리나라가 포함될 수 있는 체제는 G-20 체제가 유일하므로 G-20 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
  - 향후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G-20 정상회담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향후 G-20 정상회담에서도 의장단으로서의 선진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 조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G-20 정상회담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국제금융기구 개편에 있어 우리의 영향력 확대 노력 필요

-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의 개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IMF와 관련하여 우리 경제력을 반영하여 쿼터의 상향 조정이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IMF 쿼터 비중은 1.35%로 전체 IMF 회원국 중 1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13위의 우리 경제규모(명목 GDP 2007년 기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
- 하지만 현재 쿼터 구조상 우리나라의 쿼터를 상향조정하면 경제 규모보다 많은 쿼터를 가진 국가들(가령 일부 유럽국가들)이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쿼터 상향조정은 쉽지 않은 문제
  - 우리나라 쿼터 상향조정을 추진할 경우 EU 등 타 국가와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고려



- 따라서 국제기구 개편에 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되 각국 간 이해충돌로 합의가 쉽지 않을 시는 무리하게 목표 달성을 시도하기보다는 장기적 과제로 남겨 두는 선에서 절충할 필요
  - 국제기구 개편을 둘러싼 이해충돌로 G-20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의장국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보호주의의 극복을 위한 FTA 확대

- 현재의 WTO 규정 내에서도 광범위한 보호무역 확산이 가능하므로 보호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FTA의 확대 필요
  - 다수의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보호주의 극복 및 무역 확대를 꾀하여야 함.

■ 유동성 확보

- 금융보호주의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보호주의 그 자체보다는 세계적인 신용경색으로 개도국에 대한 크레딧이 축소되는 문제임.
  - 따라서 글로벌 신용경색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금융보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될 것임.
- 국제금융기구의 개도국 금융지원에 대한 합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 프로그램의 조속한 마련
  - 공동의장국의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노력
- 또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부실자산 정리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신뢰제고 노력도 필요
  - 부실자산을 신속히 정리하여 해외 차입 여건 제고

## 제 I 장

# 최근 경제동향

1. 실물경제
2. 물가
3. 노동시장
4. 금융시장
5. 외환시장
6. 해외경제

# 1. 실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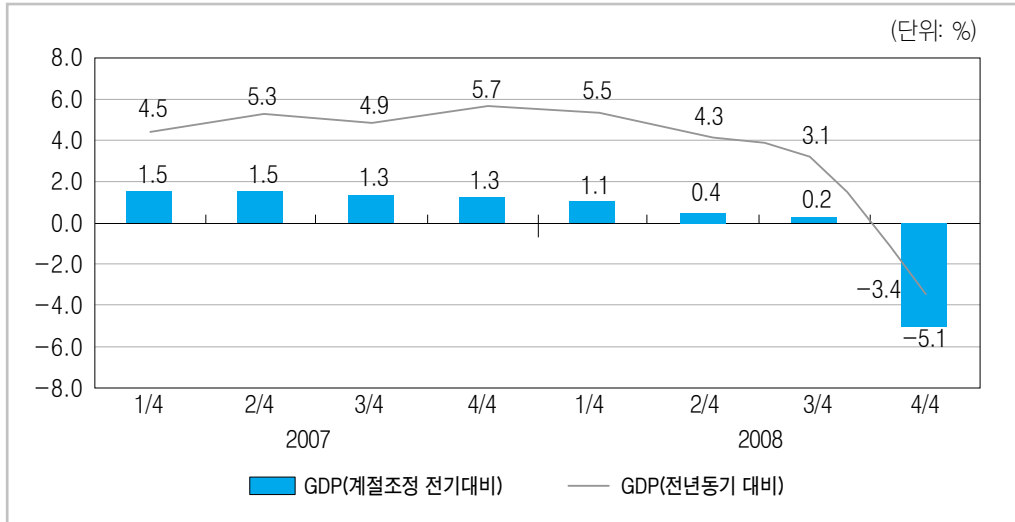
## (1) 국내총생산

■ 설비투자 및 수출 급감으로 국내총생산이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 최대폭으로 감소

- 2008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비)은 -5.1%로 3/4분기에 비해 5.3%p 급락
  - 1970년 이후 외환위기(1998년 1/4분기 -7.8%)를 제외하고 제일 낮은 수준
  - 계절조정 전기비: 1.1%(2008년 1Q) → 0.4%(2Q) → 0.2%(3Q) → -5.1%(4Q)
  - 전년동기비 증가율도 급락: 5.5%(2008년 1Q) → 4.3%(2Q) → 3.1%(3Q) → -3.4%(4Q)
  
- 지출항목별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비)을 보면 모든 항목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설비투자와 수출, 수입이 현저히 감소
  -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의 부진이 확대되어 계절조정 전기비 14.2% 감소하고 전년동기비로도 14% 감소하여 국내총생산 감소를 주도
  - 민간소비는 계절조정 전기비 4.6% 감소하여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전년동기비 역시 3.7% 감소
  - 건설투자 역시 민간부문의 위축이 심하여 계절조정 전기비 3%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비로는 5.6% 감소
  -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은 주요 수출 품목의 극심한 부진으로 계절조정 전기비 8.9% 감소하고 전년동기비로도 6.9% 감소
  -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역시 경기침체의 여파로 계절조정 전기비 14.2% 감소하고 전년동기비로도 11.2% 감소
  
- 내수 및 수출의 전년동기비 국내총생산 성장기여도 급감
  - 내수의 국내총생산 기여도는 전년동기비로 3/4분기 2.9%p에서 급감하여 4/4분기 -4.9%p를 기록
  -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의 국내총생산 성장기여도가 급락하여 각각 -2%p 및 -1.3%p 기록

-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의 국내총생산 성장기여도는 3/4분기 3.9%p에서 4/4분기 -3%p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입 역시 3.6%p에서 -4.6%p로 급락

〈그림 1-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주: 2005년 연쇄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표 1-1〉 지출항목별 증가율

(단위: 계절조정, 전기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국내총생산	5.1	1.1	0.4	0.2	-5.1	2.2
민간소비	5.1	1.1	-0.2	0.0	-4.6	0.9
건설투자	1.4	-2.5	-0.3	0.1	-3.0	-2.1
설비투자	9.3	-0.4	0.4	0.2	-14.2	-2.0
수출(재화와 서비스)	12.6	0.0	2.7	-0.4	-8.9	5.7
수입(재화와 서비스)	11.7	-0.8	2.9	1.1	-14.2	3.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표 1-2〉 지출항목별 기여도

(단위 : 전년동기비, %p)

구 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	5.1	5.5	4.3	3.1	-3.4	2.2
내수	4.6	4.9	3.1	2.9	-4.9	1.4
민간소비	2.8	2.3	1.2	0.8	-2.0	0.5
건설투자	0.3	-0.4	0.0	0.0	-1.0	-0.4
설비투자	0.9	0.1	0.1	0.4	-1.3	-0.2
재화 및 서비스 수출	5.0	4.6	4.8	3.9	-3.0	2.4
(공제)재화 및 서비스 수입	4.5	4.0	3.6	3.6	-4.6	1.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2) 생산

### ■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는 감소세 확대되었으나 전월비는 소폭 증가

- 제조업 생산은 수출 감소 및 내수 위축, 설 연휴에 의한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2009년 1월 중 전년동월비 27% 감소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비, %): 5.6%(2008년 3Q) → -2.3%(10월) → -14.5%(11월) → -20%(12월) → -27%(2009년 1월)
  - 자동차 및 트레일러업종은 전년동월비 49.4% 감소하여 생산 감소세 주도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업종은 31.9% 감소
- 제조업 생산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 1.5% 증가하여 2008년 10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마감하고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임.

###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하락하고 재고 증가세는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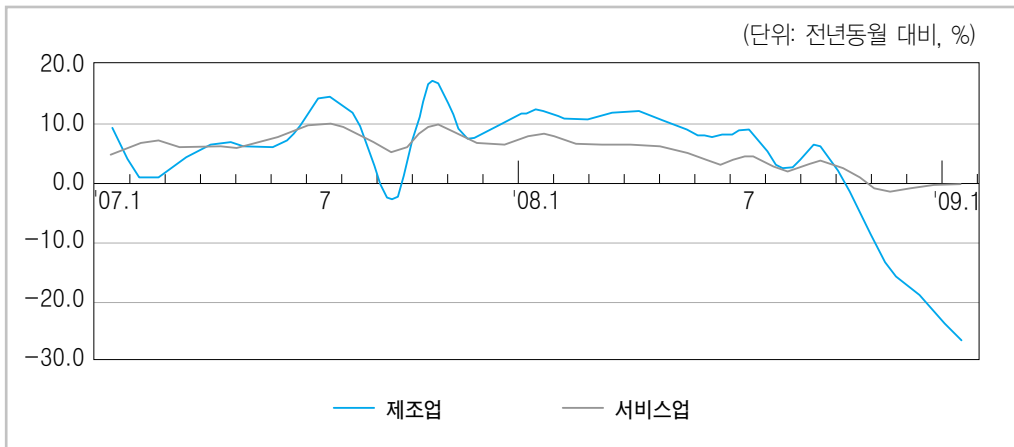
- 제조업 평균가동률 감소세가 확대되고 재고 증가는 다소 둔화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09년 1월 61.5로 1980년 9월(61.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08년 5월 이후 전년동월 대비 9개월 연속 감소
- 2009년 1월 제조업 재고 증가는 생산 조정의 영향으로 진정되는 양상  
16.3%(2008년 2Q) → 17.5%(3Q) → 7.2%(4Q) → 0.3%(2009년 1월)

■ 서비스업 생산 감소세는 지속되었지만 다소 진정되는 양상

- 2009년 1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비 0.9% 감소. 감소세는 점차 둔화
  - 전년동기비: 4.8%(2008년 2Q) → 3.2%(3Q) → 1.4%(10월) → -1.5%(11월) → -1%(12월) → -0.9%(2009년 1월)
-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및 숙박·음식점업이 생산 감소세를 주도.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의 생산은 증가세 유지
  -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및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1월 각각 9.9%, 4.8% 및 3.9% 감소했으며 그 외 기타개인서비스업(-3.3%),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6%), 숙박·음식점업(-2.5%)를 포함한 전 업종의 생산 감소세 지속
  -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7%), 금융·보험업(4.6%) 및 교육서비스업(1.4%)은 생산 증가세 유지

<그림 1-2> 생산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표 1-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제조업 전체	7.1	11.1	9.3	5.6	-12.1	3.0	-27.0
중공업	8.2	13.2	11.6	6.8	-12.8	4.1	-27.9
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장비	13.5	33.4	30.4	10.2	-24.2	9.5	-31.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9	2.6	-0.5	6.6	-9.7	-0.5	-28.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2	5.3	1.7	-6.2	-14.5	-3.7	-49.4
경공업	2.1	1.7	-1.2	0.0	-8.7	-2.1	-23.1
제조업 재고지수 증감(%)	5.7	8.5	16.3	17.5	7.4	10.2	0.3
평균가동률 증감(%p)	0.1	1.9	0.5	-1.8	-12.0	-2.9	-19.8
서비스업 전체	6.8	6.7	4.8	3.2	-0.3	3.5	-0.9
환경	4.9	8.9	6.9	3.9	3.7	5.7	-0.4
도매 및 소매업	5.8	4.0	3.1	3.6	-4.6	1.4	-2.0
운수업	6.6	8.1	8.2	4.3	-2.8	4.4	-9.9
숙박 및 음식점업	2.2	3.6	0.6	1.7	-3.0	0.7	-3.9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8	6.0	5.5	3.4	-0.2	3.5	-2.5
금융 및 보험업	17.1	16.1	9.8	9.6	4.9	9.9	4.6
부동산 및 임대업	3.1	5.7	2.7	-8.4	-7.5	-2.1	-1.8
기술서비스업	5.4	4.2	1.5	1.8	0.9	2.0	-1.6
사업지원서비스업	9.0	8.0	7.7	3.2	0.1	4.6	-4.8
교육서비스업	2.2	3.4	1.9	-0.5	2.3	1.8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4	6.1	6.8	6.1	6.5	6.3	7.0
예술·스포츠·여가	6.3	2.5	0.4	1.7	4.3	2.2	-2.6
기타개인서비스업	0.1	1.9	1.0	-1.4	-1.8	-0.1	-3.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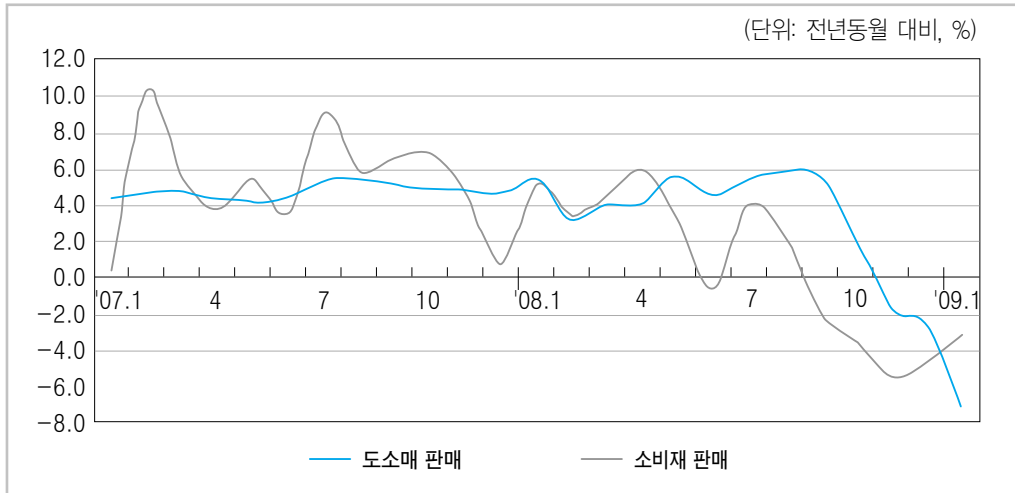
### (3) 소비

■ 소비는 지난해 4/4분기 큰 폭 하락으로 반전 이후 올 1월에도 부진 지속

-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도소매 판매와 소비재 판매의 감소세 지속
  - 도소매 판매: 4.2%(2008년 3Q) → -4%(4Q) → -6.7%(2009년 1월)
  - 소비재 판매: 1.4%(2008년 3Q) → -4.6%(4Q) → -3.1%(2009년 1월)
  
- 특히 내구재 소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내구재 소비(전년동기비): 8.7%(2008년 2Q) → 0.0%(3Q) → -11.3%(4Q) → -19.8%(2009년 1월)
  - 가정용 직물 및 의복,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 소비는 4/4분기에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1월에는 감소세가 완화
  - 비가공식품, 의약품 등의 비내구재 소비는 4/4분기에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1월에는 큰 폭의 증가율로 전환
  
- 업태별로는 전체적으로 부진. 하지만 올 1월 설날효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소폭 개선
  - 백화점 매출은 4/4분기 -5%의 큰 폭 감소율을 보였으나, 1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5% 증가
  - 대형마트도 매출도 4/4분기 1.2% 감소에서 1월에는 10% 증가
  - 반면 무점포판매점과 전문상품소매점의 올 1월 매출은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악화



〈그림 1-3〉 소비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표 1-4〉 소비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도소매 판매	4.7	4.4	3.6	4.2	-4.0	1.9	-6.7
소비재 판매	5.2	4.4	2.9	1.4	-4.6	0.9	-3.1
내구재	10.0	9.5	8.7	0.0	-11.3	1.5	-19.8
준내구재	3.9	3.8	-2.1	0.6	-9.9	-2.4	-1.1
비내구재	5.2	1.9	0.3	1.2	-0.4	0.7	5.0
백화점	0.8	4.3	3.7	0.2	-5.0	0.5	8.7
대형마트	8.7	7.6	3.1	-0.2	-1.2	2.2	10.0
기타무점포판매점	-2.3	10.5	7.8	3.8	0.6	5.6	-13.5
전문상품소매점	5.6	2.0	0.7	-1.0	-8.6	-1.9	-9.4

자료: 통계청

#### (4) 투자

##### ■ 설비투자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세 확대

- 설비투자는 기계류투자의 부진 여파로 10월 이후 감소세 확대
  - 지난해 3/4분기 5.3% 증가에서 4/4분기 16.2% 감소, 올 1월에는 25.3% 감소
  - 특히, 기계류 투자가 3/4분기 5.6% 증가에서 4/4분기 17.2% 감소, 올 1월에는 28.2% 감소
-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불변 기준)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감소세 확대. 민간 제조업 및 비제조업 부문 모두 부진
  - 국내기계수주: 지난해 3/4분기 7.2% 감소한 데 이어 4/4분기 38.5%, 올 1월에는 47.8% 감소
  - 민간 제조업부문: -20.3%(2008년 3Q) → -59.8%(4Q) → -64.4%(2009년 1월)
  - 민간 비제조업부문: 11%(2008년 3Q) → -18.7%(4Q) → -33.1%(2009년 1월)
  - 반면 공공부문 국내기계수주는 전동차 발주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 1월 전년동월 대비 52.4% 증가

##### ■ 건설기성(경상)은 지난해 4/4분기 감소(-2.2%)에서 올 1월에는 증가(2%)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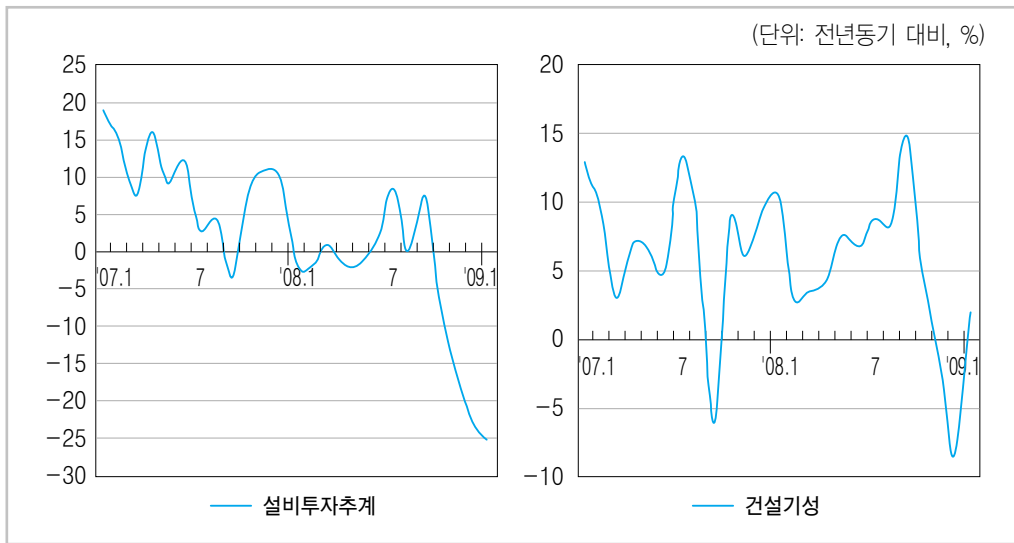
- 민간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공공부문은 SOC사업 및 예산조기집행<sup>2)</sup>의 영향으로 올 1월 27.7% 증가한 데 기인
  - 공공부문 건설기성: 3.5%(2008년 2Q) → 6.6%(3Q) → 8.7%(4Q) → 27.7%(2009년 1월)
  - 반면 민간부문은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3/4분기의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4/4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4.6%(2008년 2Q) → 10.5%(3Q) → -9.1%(4Q) → -9.3%(2009년 1월)]

---

2) 2009년 2월 말 현재 집행예산은 총 257조7천억 원 중 60조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46조7천억 원의 128.4%를 집행. 연간 예산 집행 진도율은 23.3%로 계획보다 5.1%가 더 집행. 세부 내역별로는 볼 때 SOC사업은 총 42조9천억 원 중 11조 원이 집행돼 당초 계획됐던 5조1천억 원의 두 배를 상회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감소세 지속. 공공부문 수주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수주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부문 수주부진에 기인
  - 국내건설수주는 지난해 1/4분기 이후 감소세 지속
  - 민간 건설수주는 지난해 3/4분기 이후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지속
  - 공공부문은 지난해 12월 이후 SOC사업 및 예산조기집행의 영향으로 큰 폭의 증가세[-39.3%(2008년 11월) → 30.7%(12월) → 33.8%(2009년 1월)]

<그림 1-4> 투자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표 1-5〉 투자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설비투자추계(불변)	8.6	-0.7	-0.5	5.3	-16.2	-3.2	-25.3
국내기계수주(불변)	21.1	25.2	8.4	-7.6	-39.5	-5.5	-47.8
공공부문	-11.2	8.8	83.7	-26.8	-3.5	4.9	52.4
민간부문	24.2	25.9	5.5	-6.4	-43.9	-6.2	-51.9
제조업	31.9	40.2	-4.5	-20.3	-59.8	-15.8	-64.4
비제조업	16.0	11.8	15.7	11.0	-18.7	5.4	-33.1
건설기성액(경상)	6.6	5.6	6.1	10.6	-2.2	4.7	2.0
공공부문	8.4	6.8	3.5	6.6	8.7	6.5	27.7
민간부문	4.5	3.0	4.6	10.5	-9.1	1.7	-9.3
민자	33.2	53.7	49.2	44.4	20.1	38.6	8.9
건설수주(경상)	23.6	-3.7	-6.1	-22.7	-6.5	-9.0	-15.0
공공부문	40.3	17.4	14.6	2.9	5.0	9.1	33.8
민간부문	16.5	-14.1	-4.7	-32.3	-15.3	-15.8	-39.7
민자	53.5	70.0	-66.1	20.7	27.6	-7.0	-67.8

자료: 통계청

## (5)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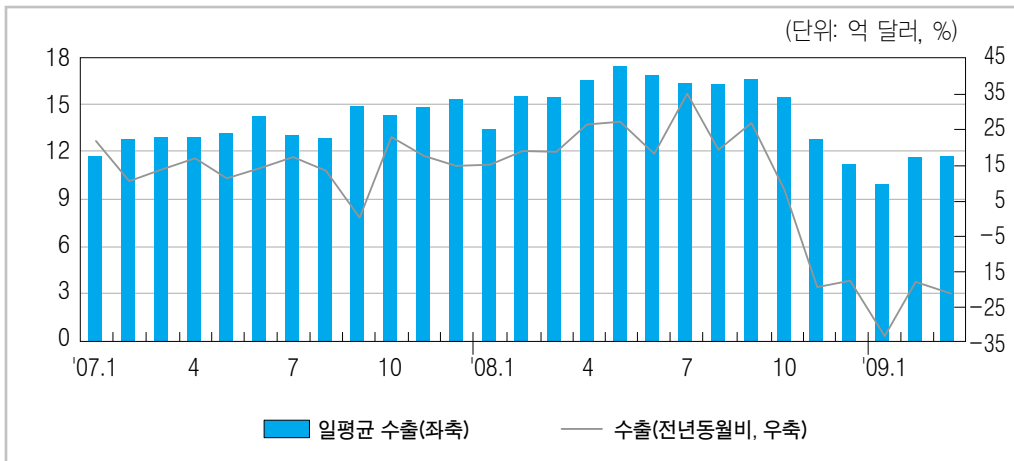
### ■ 세계경제 침체 가속화로 수출 급감

-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요 위축으로 대부분의 주력상품 수출이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임.
  - 1월 중 수출은 해외수요 급감과 설 연휴의 영향 등이 겹치면서 전년동월 대비 -33.8% 감소
  - 2월에는 선박과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다른 주력상품들의 수출 감소세가 다소 둔화된 데 힘입어 전체 수출증가율 1월에 비해 소폭 개선되어

전년동월 대비 -17.1% 기록

- 3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1.2% 감소했으나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박수출의 호조와 수출지원 정책 확대 등으로 전월에 비해서는 29억 달러 확대됨.
- 일평균 수출액은 소폭 개선되는 모습[11.3억 달러(2008년 12월) → 9.9억 달러(2009년 1월) → 11.6억 달러(2월) → 11.8억 달러(3월)]

〈그림 I-5〉 최근 수출 추이



자료: 지식경제부

- 품목별 수출은 선박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두 자릿수의 감소세 지속
  - 반도체는 독일 키몬다의 파업과 업계 감산 등으로 가격<sup>3)</sup>이 소폭 상승했으나 컴퓨터와 휴대폰 등의 수요 위축으로 큰 폭의 감소세
  - 자동차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의 여파에 따른 해외수요 위축으로 큰 폭의 수출 감소
  - 무선통신기기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월 들어 해외수요 개선

3) D램 평균 가격추이(\$/개, DDR2 512M): (2007. 1)5.69→(9)1.57→(10)1.31→(11)1.01→(12)0.86→(2008. 1)2.03→(9)1.47→(11)0.81→(12)0.66→(2009. 1)0.83→(2)0.98  
 Nand Flash 가격추이(\$/개, MLC 8G): (2007. 1)7.78→(12)4.27→(2008. 2)3.07→(3)2.62→(5)3.10→(7)2.29→(9)1.29→(11)1.23→(12)1.16→(2009. 1)1.97→(2)2.77

으로 증가세 반전했으나 3월 들어 다시 큰 감소세

- 컴퓨터는 소비심리 위축과 기업투자 감소 등으로 두 자릿수의 감소세
- 선박은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3~4년치 수주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수주량이 감소 추세
- 석유제품은 주요 시장의 수요 감소와 수출단가 하락으로 감소세 지속

〈표 1-6〉 품목별 수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1일~20일
반도체	4.5	-15.6	2.6	-9.8	-39.7	-16.0	-46.9	-40.6	-32.9
자동차	13.3	8.7	-0.2	-13.5	-17.8	-6.0	-56.0	-32.9	-47.7
무선통신기기	12.7	29.0	30.6	26.5	-9.2	17.3	-22.0	0.9	-23.3
컴퓨터	9.8	5.4	-12.3	-28.4	-49.7	-22.5	-57.8	-45.3	-38.0
선박	25.6	20.2	22.5	149.5	67.9	55.4	18.5	49.8	137.1
석유제품	17.5	64.0	101.6	101.0	-14.8	56.8	-36.6	-37.9	-48.0

자료: 한국무역협회

– 지역별로는 수출 감소세가 소폭 완화될 조짐

- 대중국 수출은 선박 및 철강제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2~3월 중 수출 감소 폭이 큰 폭 완화됨.
- 대미국 수출은 2월 들어 가정용 전자제품 등의 수요가 개선되면서 감소세가 완화됨.
- 대EU 수출 또한 1월 중 대폭 감소했으나 2~3월 들어 감소세가 크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대일본 수출은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거의 전 부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유지함.
- 대ASEAN 수출도 1~3월 중 높은 감소세를 유지함.

〈표 1-7〉 지역별 수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1일~20일
중국	18.0	20.7	33.8	21.5	-31.5	11.5	-38.6	-13.4	-17.2
일본	-0.6	12.4	17.4	14.7	-13.4	7.1	-34.3	-31.3	-29.8
미국	6.0	-2.9	5.5	9.6	-6.4	1.3	-27.8	-18.2	-24.0
ASEAN	20.8	34.7	38.4	47.4	-6.0	27.2	-37.3	-33.1	-27.1
EU	15.5	15.8	6.5	14.5	-16.7	4.3	-40.2	-26.0	-16.9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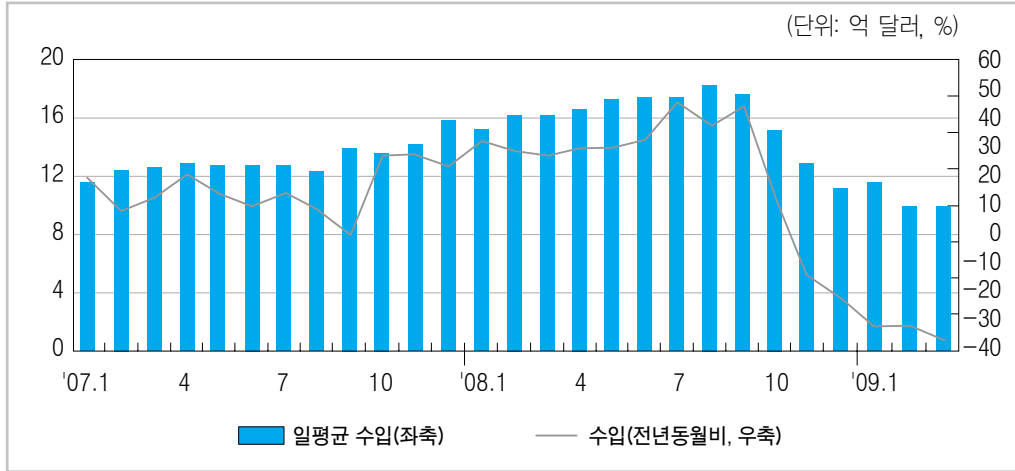
## (6) 수입

■ 국제유가 하락 및 국내수요 둔화 지속 등으로 수입은 감소세 유지

- 작년 11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수입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국내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함.

- 수입증가율: -31.9%(2009년 1월) → -30.9%(2월) → -36%(3월)
- 일평균 수입금액: 11.5억 달러(2009년 1월) → 10.5억 달러(2월) → 9.9억 달러(3월)

〈그림 1-6〉 최근 수입 추이



자료: 지식경제부

- 용도별 수입, 올해 들어 감소세 큰 폭 확대
  - 원자재 수입은 원유 도입단가 하락과 국내수요 둔화로 감소세
  - 자본재 수입은 컴퓨터 부품관련 수입 감소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
  - 소비재 수입은 자동차와 생활용품 중심으로 감소세

〈표 1-8〉 용도별 수입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1일~20일
원자재	16.4	39.7	41.5	46.6	-2.8	33.5	-30.2	-35.0	-46.9
자본재	14.3	13.1	14.0	21.6	-16.6	6.3	-33.6	-23.0	-31.0
소비재	17.5	18.5	18.6	6.2	-16.6	8.0	-33.2	-27.9	-30.8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가별로는 모든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함.
  - 대일본 수입은 모든 부문에서 수입이 크게 둔화되면서 2008년 4/4분기 -15.8%,



2009년 1~2월 중 -32.4%의 감소세를 보임.

- 대중국 수입은 원자재 수입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008년 4/4분기 -9.3%였던 수입 감소세가 1~2월 중 -33.3%로 크게 확대됨.
- 대미국 수입 또한 모든 품목에 걸쳐 수입 감소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4/4분기 -15.1%, 2009년 1~2월 중 -38.6%의 감소세를 기록함.

〈표 I -9〉 국가별 · 용도별 수입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일본	수입총액	8.3	13.8	14.9	9.61	-15.8	8.3	-36.7	-28.0
	원자재	12.7	21.0	25.3	20.2	-13.3	15.4	-30.8	-28.2
	자본재	9.0	7.1	6.0	1.2	-16.2	2.6	-41.2	-26.6
	소비재	5.3	19.5	13.2	-0.7	-28.8	3.3	-46.2	-37.3
중국	수입총액	29.8	27.4	32.0	29.2	-9.3	22.0	-35.7	-30.9
	원자재	36.4	33.4	41.2	10.5	0.2	36.0	-44.2	-45.1
	자본재	22.1	32.3	33.9	7.9	-10.7	27.0	-29.1	-14.8
	소비재	19.5	9.4	9.6	3.6	-23.7	0.1	-31.1	-32.8
미국	수입총액	10.6	6.6	6.6	8.5	-15.1	3.0	-44.8	-32.3
	원자재	26.8	25.0	27.4	31.9	-11.2	16.4	-40.6	-35.6
	자본재	9.3	-7.1	-11.6	-11.1	-26.1	-17.5	-49.3	-33.4
	소비재	15.2	34.3	47.8	28.5	25.1	35.0	-35.9	-16.5

자료: 한국무역협회

## (7) 경상수지

- 경상수지는 1월 중 -13.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2월 들어 36.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1월 중 -13.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는 2월 들어 상품수지의 큰 폭 개선에 힘입어 36.8억 달러의 큰 폭 흑자를 기록함.
  - 상품수지는 1월 중 세계경제 침체 지속과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1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 2월 들어 환율효과 등으로 수출이 전월에 비해 개선됨에 따라 31.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또한 서비스수지 적자는 여행수지 흑자 반전 등에 힘입어 감소세가 더욱 확대됨.
-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은 원화 약세와 국내경기 둔화 등에 기인
  - 여행수지는 환율 상승과 국내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둔화와 외국인 여행자 증가 등으로 2월 중 3.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사업서비스수지: -46.4억(2008년 4/4분기) → -10.8억 달러(2009년 1월) → -9.5억 달러(2월)

〈표 1-10〉 최근 경상수지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경상수지(=A+B+C+D)	58.5	-52.1	-1.3	-85.8	75.2	-64.1	-13.6	36.8
A. 상품수지	281.7	-12.2	57.2	-34.8	50.0	59.94	-14.6	31.5
B. 서비스수지	-197.7	-50.7	-42.7	-56.9	-17.0	-167.3	-7.1	-4.9
여행수지	-158.4	-30.2	-27.7	-29.7	7.1	-80.5	0.2	3.7
사업서비스수지	-74.1	-29.1	-29.0	-40.6	-46.4	-145.1	-10.8	-9.5
C. 소득수지	10.0	16.9	-6.5	13.6	27.1	51.1	5.6	5.2
D. 경상이전수지	-35.3	-6.1	-9.4	-7.7	15.5	-7.7	2.5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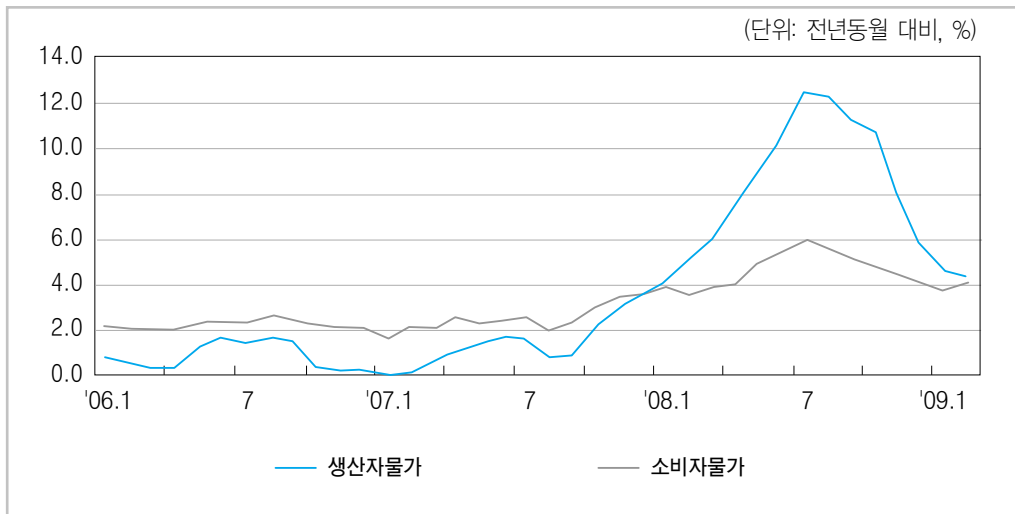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 물가

- 소비자물가,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2월 중 전월대비 0.7%, 전년동월 대비 4.1% 상승세로 반전
  - 공업제품 가격 상승률이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으로 반전한 데 기인: 9.1%(2008년 10월) → 3.3%(2009년 1월) → 5%(2월)
    - 특히 공업제품 중 석유류는 전월대비 6.2% 상승하며 오름세 주도
  - 반면 서비스물가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 대비 3.4% 상승에 그치며 1월에 비해 하락
    -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모두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 소폭 둔화(전월대비 상승률도 포함 내지 소폭 둔화)
  -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2월 들어 전월대비 0.4%, 전년동월 대비 5.2% 상승
    - 1월에 비해 전년동월비로는 보험세 유지, 전월대비로는 소폭 상승(0.2%)
- 생산자물가는 2월 들어 전월대비 0.6%, 전년동월 대비 4.4% 상승. 1월에 비해 오름세 확대
  - 생산 감축으로 인한 공급부족과 환율 상승 영향으로 공산품(1.1%)이 상승한 데 기인
    - 생산자물가(전월비): -1.7%(2008년 12월) → -0.3%(2009년 1월) → 0.6%(2월)
  - 반면 서비스(0%)는 보험세를 유지하였고 농림수산물(-1%)은 수요감소 및 출하증가로 하락
- 2월 수입물가(원화기준)는 큰 폭의 상승세 시현(전월대비 3.9%, 전년동월 대비 18%)
  -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달러기준 및 계약기준 수입물가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원화기준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데 기인

- 수입물가(원화기준) 상승률(전월비): -5.7%(2008년 12월) → -1.8%(2009년 1월) → 3.9%(2009년 2월)
-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도 1월의 16.7%에서 2월 들어 18%로 크게 상승

〈그림 1-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표 I -11〉 물가 추이

(단위: 2005=100 기준,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소비자물가	3.6	4.1	3.8	4.8	5.5	4.5	4.8	4.5	4.1 (0.0)	3.7 (0.1)	4.1 (0.7)	
상품	4.3	4.4	4.6	6.9	8.3	5.2	6.3	5.1	4.4 (-0.1)	3.9 (0.2)	5.2 (1.5)	
농축수산물	2.6	2.5	0.0	0.7	1.3	-0.1	-3.3	0.8	2.5 (2.3)	5.9 (3.5)	5.4 (0.6)	
공업제품	4.8	4.9	5.9	8.6	10.2	6.7	9.1	6.3	4.9 (-0.7)	3.3 (-0.7)	5.0 (1.7)	
서비스	3.0	4.0	3.3	3.6	4.0	4.0	3.9	4.1	4.0 (0.1)	3.7 (0.1)	3.4 (0.1)	
집세	1.9	2.4	1.9	2.2	2.4	2.5	2.6	2.5	2.4 (0.1)	2.3 (0.1)	2.1 (0.0)	
공공서비스	3.3	1.8	3.2	2.7	2.1	1.9	1.8	2.1	1.8 (-0.3)	2.2 (0.4)	1.8 (0.0)	
개인서비스	3.3	5.4	3.6	4.4	5.2	5.4	5.4	5.5	5.4 (0.2)	4.8 (0.0)	4.4 (0.2)	
근원인플레이션	2.4	5.6	3.0	3.9	4.8	5.4	5.2	5.3	5.6 (0.5)	5.2 (0.2)	5.2 (0.4)	
생산자물가	3.6	5.6	5.1	9.0	12.1	8.0	10.7	7.8	5.6 (-1.7)	4.7 (-0.3)	4.4 (0.6)	
수입 물가	원화기준	15.6	22.4	23.9	41.6	45.3	33.6	47.1	32.0	22.4 (-5.7)	16.7 (-1.8)	18.0 (3.9)
	계약기준	14.1	-18.2	19.7	27.3	26.1	-10.2	1.1	-13.1	-18.2 (-5.6)	-19.2 (0.1)	-22.4 (-1.6)
	달러기준	15.0	-17.1	21.7	29.3	27.0	-9.6	1.5	-12.9	-17.1 (-4.6)	-18.3 (0.2)	-22.0 (-2.2)
가공 단계별	원재료	29.6	1.6	45.1	70.2	66.5	19.3	43.2	15.1	1.6 (-10.3)	-1.6 (0.4)	-3.8 (1.3)
	중간재	5.7	15.1	9.4	18.3	24.5	20.8	26.8	20.4	15.1 (-3.5)	11.9 (-1.9)	11.9 (2.3)
	최종재	2.8	9.0	3.5	6.5	7.6	9.6	10.3	9.7	9.0 (-0.1)		9.8 (1.4)

주: ( ) 안은 전월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부동산 가격은 1월 이후 하락폭 둔화

- 전국 주택매매가격의 장기간 하락에 따라 낙폭이 컸던 강남권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월대비 하락폭이 둔화(1월 -0.6% → 2월 -0.3%)
  - 특히 강남지역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투기지역 해제, 금리 하락에 따른 금융 비용 하락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등 움직임

〈표 1-12〉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연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 국	3.1	3.1	0.6	0.4	0.2	0.2	-0.1	-0.4	-0.7	-0.6	-0.3	
서울 강북(14개구)	8.7	8.8	1.0	0.5	0.2	0.3	0.0	-0.3	-0.9	-0.5	-0.3	
서울 강남(11개구)	2.6	1.3	0.4	0.2	0.2	0.1	-0.3	-0.8	-1.6	-0.9	0.1	

자료: 국민은행

### 3. 노동시장

■ 내수 및 수출 부진 심화로 고용사정 크게 악화

- 2008년 4/4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5만4천 명 증가에 그치고 2009년 1, 2월에는 각각 10만3천 명 및 14만2천 명 감소하여 3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17만3천 명(2008년 2Q) → 14만2천 명(3Q) → 5만4천 명(4Q) → -10만3천 명(2009년 1월) → -14만2천 명(2월)
- 고용률 역시 2월 57%로 전년동월 대비 1%p 하락하여 전년동월 대비 기준 14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60.4%(2008년 2Q) → 59.9%(3Q) → 59.4%(4Q) → 57.3%(2009년 1월) → 57%(2월)

■ 제조업, 서비스업 고용부진 심화 속에 청년층 및 30대 고용 감소 확대

－ 제조업 고용감소 확대 및 서비스업 고용증가 둔화

- 제조업 취업자는 자동차, 반도체 등의 생산 급감으로 2008년 4/4분기 10만3천 명(2.6%) 감소에 이어 1월 12만7천 명(3.2%), 2월 17만6천 명(4.4%) 감소하여 감소세 심화
- 서비스업 취업자의 경우 2008년 4/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8만5천 명(1.2%) 증가하였으나 2009년 1, 2월에는 각각 5만7천 명(0.4%) 및 4만6천 명(0.3%) 증가에 그쳐 증가세 크게 감소
-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전기·운수·통신·금융서비스업의 고용감소세는 확대되었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고용증가는 2월에 회복세
- 공공부문 건설기성의 증가로 건설업 취업자 수는 1월 4만1천 명(2.4%) 감소에서 2월 1만8천 명(1.1%) 감소로 다소 진정

－ 연령별 취업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 및 30대의 고용 감소 가속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2월 전년동월 대비 19만6천 명(4.8%) 감소하여 부진이 지속
- 30대 역시 16만7천 명(2.8%) 감소하여 1월 11만3천 명(1.9%) 감소에 비해 고용 감소폭 확대
- 40대 취업자 수 역시 2월 전년동월 대비 2만5천 명 증가(0.4%)에 그쳐 고용증가세 저조: 1.4%(2008년 3Q) → 0.9%(4Q) → 0.4%(2009년 1월) → 0.4%(2월)

■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주 감소세 확대

－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감소세 확대

- 임시직 근로자는 1월 13만3천 명(2.6%), 2월 19만3천 명(3.8%) 감소하여 감소세 확대 지속: -1.6%(3Q) → -1.8%(4Q) → -2.6%(2009년 1월) → -3.8%(2월)
- 일용직 근로자는 2월에도 8만 명(4%) 감소하여 감소세 지속: -2.6%(3Q) → -3.8%(4Q) → -6.3%(2009년 1월) → -4.0%(2월)
- 상용근로자가 1월 28만7천 명(3.3%) 증가에 이어 2월에도 39만 명(4.4%) 증가

하여 임금근로자 증가세 유지에 기여: 4.0%(3Q) → 3.6%(4Q) → 3.3%(2009년 1월) → 4.4%(2월)

- 자영업주가 크게 감소하여 비임금 근로자의 감소세 확대
  - 자영업주는 1월 11만2천 명(2%) 감소에 이어 2월에는 25만6천 명(4.4%) 감소하여 감소세 크게 확대: -1.2%(3Q) → -1.6%(4Q) → -2.0%(2009년 1월) → -4.4%(2월)
  - 자영업주 감소세의 확대로 비임금 근로자 역시 2월 25만9천 명(3.7%) 감소하여 감소세 확대: -0.9%(3Q) → -1.1%(4Q) → -1.8%(2009년 1월) → -3.7%(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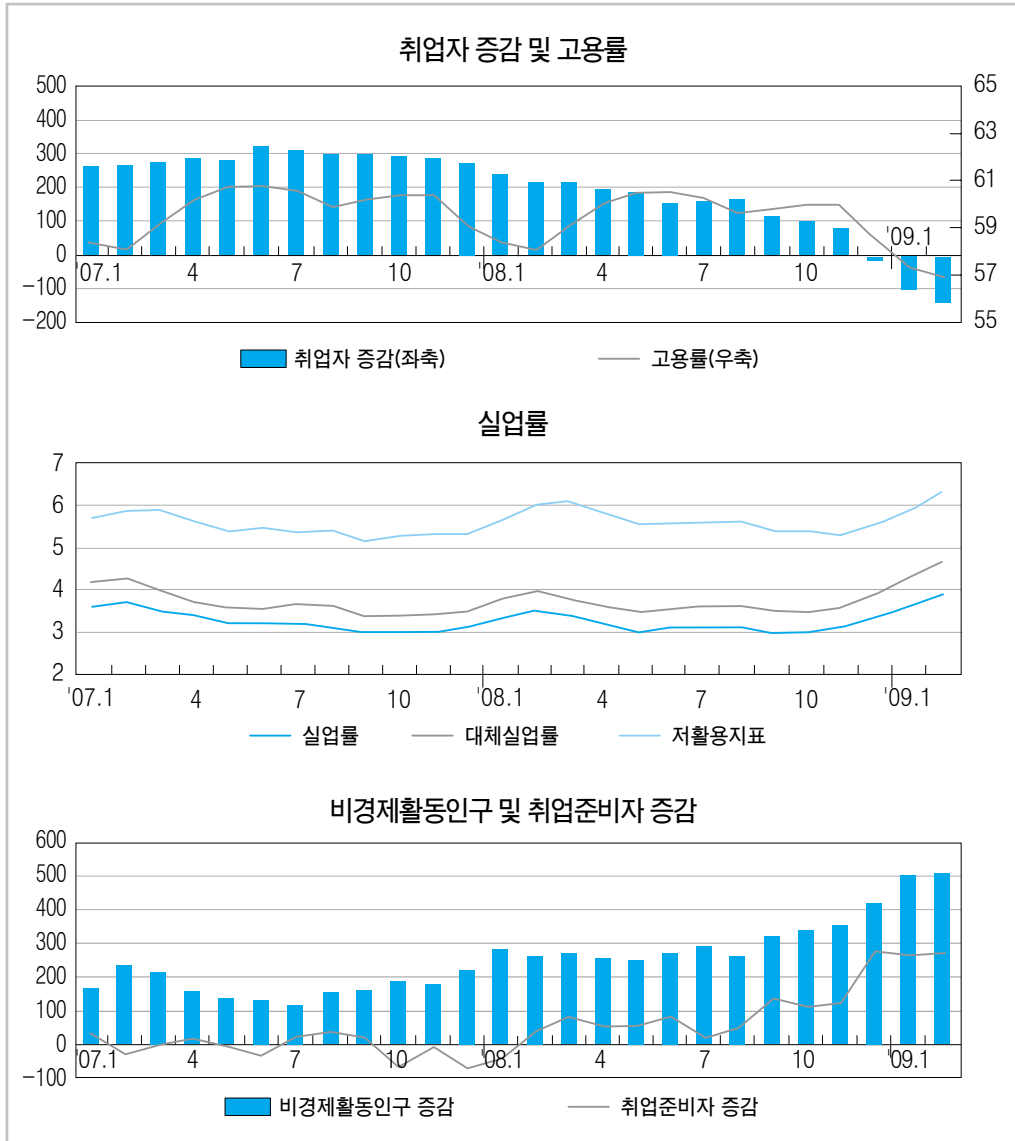
■ 실업자 및 실업률이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크게 증가

- 안정적이던 실업률은 1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 1월 실업자는 84만8천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7만3천 명(9.3%) 증가하였고 2월에는 92만4천 명으로 10만5천 명(12.8%) 증가
  - 실업률 역시 1월 3.6%로 상승한 이후 2월에도 3.9%로 전년동월 대비 0.4%p 상승
  -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09년 2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40만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2만3천 명(44.4%) 증가하였으며 2월 신규 신청자 역시 10만8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7만 명(76.6%) 증가
-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 확대
  - 2008년 평균 29만7천 명(2%) 증가한 비경제활동인구는 1월에는 50만6천 명(3.2%) 증가하고 2월에도 50만9천 명(3.2%) 증가하여 증가세 확대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 2월 각각 전년동월 대비 4만2천 명 및 4만9천 명 증가하여 2008년 평균 증가 1만1천 명을 크게 상회
  - 실질적 무직자에 해당하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휴직자, 그리고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의 합은 2009년 2월 358만4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7만4천 명(8.3%)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의 9%에 달함.



〈그림 1-8〉 노동시장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 대비 %, %)



주: 대체실업률(U4) = (실업자+구직단념자)/경제활동인구×100

저활용지표 = (실업자+취업준비자)/경제활동인구×100

실질적 무직자 =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휴직자  
+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표 1-13〉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 대비 증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취업자 수		23,433	23,051	23,871	23,752	23,636	23,577	22,861	22,742
전년동기비 증감		282	210	173	142	54	144	-103	-142
고용률		59.8	58.5	60.4	59.9	59.4	59.5	57.3	57.0
취업 시간별	36시간 미만	7.5	-8.1	19.1	29.5	11.1	14.1	10.0	13.0
	36시간 이상	0.3	2.6	-1.7	-5.7	-1.2	-1.5	-2.4	-3.1
연령 별	15~29세	-1.6	-2.5	-2.1	-2.7	-4.0	-2.8	-5.7	-4.8
	30~39세	-1.6	-0.1	0.5	-0.6	-1.5	-0.4	-1.9	-2.8
	40~49세	1.2	0.8	0.9	1.4	0.9	1.0	0.4	0.4
	50~59세	6.7	6.6	4.8	4.0	4.9	5.1	4.9	4.5
	60세 이상	4.6	0.6	-0.9	1.1	1.9	0.7	1.1	0.6
종사 상 지 위 별	비임금근로자	-1.8	-1.4	-1.5	-0.9	-1.1	-1.2	-1.8	-3.7
	자영업주	-1.4	-1.3	-1.1	-1.2	-1.6	-1.3	-2.0	-4.4
	무급가족종사자	-3.6	-1.8	-3.3	0.7	0.9	-0.8	-1.0	-0.3
	임금근로자	2.7	2.0	1.8	1.3	0.8	1.5	0.1	0.7
	상용	5.1	5.2	5.3	4.0	3.6	4.5	3.3	4.4
	임시	0.6	-1.9	-1.8	-1.6	-1.8	-1.8	-2.6	-3.8
	일용	-1.2	-1.2	-2.8	-2.6	-3.8	-2.6	-6.3	-4.0
임금근로자비율		68.2	69.2	68.5	68.3	68.9	68.7	70.2	70.1
산 업 별	제조업	-1.1	-0.4	-0.8	-1.3	-2.6	-1.3	-3.2	-4.4
	건설업	0.9	-1.2	-2.4	-2.2	-2.2	-2.0	-2.4	-1.1
	서비스업	2.4	2.0	1.9	1.7	1.2	1.6	0.4	0.3
	도소매·음식숙박	-0.7	-0.6	-0.7	-0.9	-1.1	-0.8	-1.6	-2.0
	사업·개인·공공	4.8	3.8	4.0	4.5	4.0	4.0	2.9	3.3
	전기·운수·통신·금융	2.5	2.7	1.8	-0.7	-1.9	0.5	-2.3	-2.7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표 I -14〉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업자 <sup>1)</sup>	783 (-44)	801 (-50)	767 (-24)	752 (-4)	757 (23)	769 (-14)	848 (73)	924 (105)
실업률	3.2	3.4	3.1	3.1	3.1	3.2	3.6	3.9
<15~29세> 실업률	7.2	7.3	7.4	6.9	7.0	7.2	8.2	8.7
계절조정실업률		3.0	3.2	3.2	3.2		3.3	3.5
대체실업률(U4) <sup>2)</sup>	3.7	3.5	3.5	3.6	3.6	3.6	4.3	4.6
저활용지표 <sup>3)</sup>	5.5	5.9	5.6	5.5	5.4	5.6	5.8	6.3
실질적 무직자 <sup>4)</sup>	2,888 (-7)	3,179 (27)	2,815 (65)	2,939 (67)	2,951 (172)	2,971 (83)	3,460 (263)	3,584 (274)
비경제활동인구	14,954 (170)	15,575 (270)	14,903 (256)	15,154 (289)	15,373 (373)	15,251 (297)	16,156 (506)	16,233 (509)
15~29세	5,325 (116)	5,382 (116)	5,377 (48)	5,409 (88)	5,526 (141)	5,423 (98)	5,490 (186)	5,527 (124)
30~59세	3,742 (11)	3,882 (-33)	3,627 (-26)	3,754 (35)	3,729 (48)	3,748 (6)	4,028 (83)	4,050 (129)
60세 이상	4,224 (66)	4,587 (186)	4,280 (224)	4,332 (186)	4,468 (174)	4,416 (191)	4,851 (195)	4,858 (209)
구직단념자	108 (-14)	114 (-15)	104 (9)	124 (16)	132 (33)	119 (11)	165 (42)	169 (49)
취업준비	546 (21)	610 (80)	621 (62)	604 (65)	558 (1)	598 (52)	529 (-38)	568 (-39)

주: 1)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

2) 대체실업률(U4)=(실업자+구직단념자)/경제활동인구\*100

3) 저활용지표=(실업자+취업준비자)/경제활동인구\*100

4) 실질적 무직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휴직자, 구직단념자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취가취업 희망자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4. 금융시장

### (1) 통화지표

■ 2009년 1월 중 M2 증가율은 전월보다 하락하여 12%

- M2 증가율은 경기 부진과 유동성 악화 등에 따른 은행 대출 증가세 둔화와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국외부문에서 통화가 환수됨에 따라 하락
  -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의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월(+13.1%)에 비해 증가율 하락
- 1월 중 Lf(금융기관 유동성) 증가율은 Lf 구성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M2의 증가세 축소에 따라 전월 10.4%에서 9.2%로 둔화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 유동성의 축소와 신용경색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통화 긴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 M2 증가율은 2008 2/4분기 15.3%까지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시현

〈표 1-15〉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평잔 기준)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중	연중	1/4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M2	11.2	14.3	13.3	15.3	14.7	13.8	14.7	14.5	14.2	14.0	13.1	12.0
Lf *	10.2	11.9	11.6	12.8	12.1	11.2	11.8	12.2	11.9	11.4	10.4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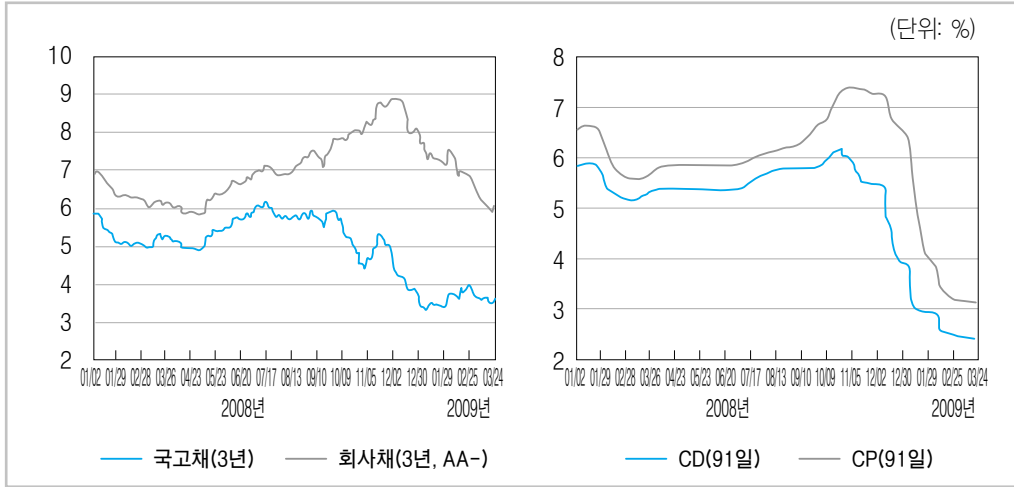
주: \* 는 광의유동성(L)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M3가 Lf(금융기관 유동성)로 개칭되어 유동성지표로 활용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 (2) 금리

### ■ 기준금리 인하, 양적팽창 정책 등에 힘입어 시장금리는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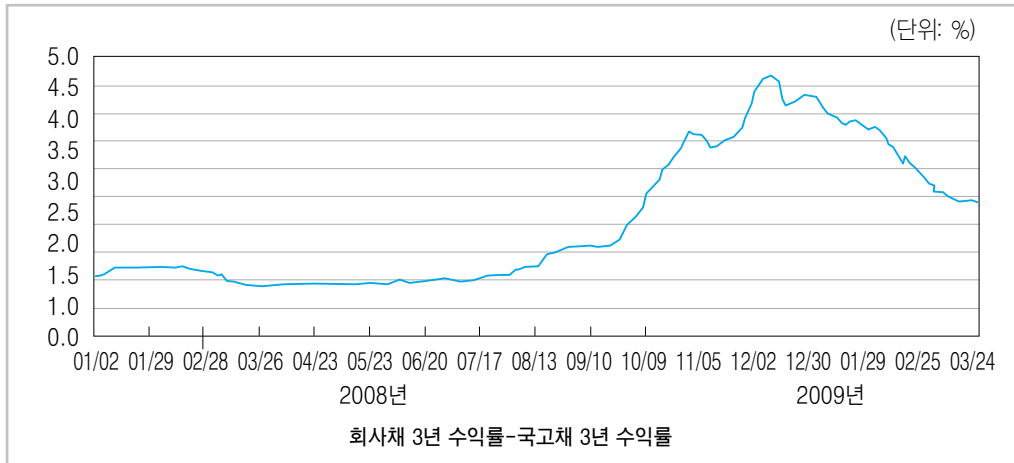
- 회사채 수익률은 풍부한 시장유동성과 함께 우량물에 대한 투자자의 매수세 확대  
로 큰 폭의 하락세 지속
    - 기준금리 인하: 4% → 3%(2008년 12월 11일) → 2.5%(2009년 1월 9일) → 2%(2009년 2월 12일)
    - 회사채 유통수익률(AA- 기준): 7.72%(2008년 12월 말) → 7.29%(2009년 1월 말) → 6.60%(2009년 2월 말) → 6.02%(2009년 3월 24일)
  - 반면 국고채 유통수익률의 경우 추정편성에 따른 발행물량 증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추세를 보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힘입어 다시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 시현
    - 국고채 유통수익률: 3.41%(2008년 12월 말) → 3.59%(2009년 1월 말) → 3.82%(2009년 2월 말) → 3.64%(2009년 3월 24일)
  - CD, CP의 단기시장금리도 풍부한 시장유동성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 시현
    - CD 유통수익률: 3.93%(2008년 12월 말) → 2.96(2009년 1월 말) → 2.49(2009년 2월 말) → 2.43(2009년 3월 24일)
    - CP 유통수익률: 6.49%(2008년 12월 말) → 3.99(2009년 1월 말) → 3.19(2009년 2월 말) → 3.12(2009년 3월 24일)
- 우량 회사채에 대한 수요 확대로 신용스프레드는 축소
- 우량 회사채에 대한 수요 확대와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 우려에 따른 국고채 금리의 상승으로 2009년 들어 신용스프레드 축소 지속
    -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로 2008년 말까지 확대되던 신용스프레드는 2008년 말 431bp에서 2009년 2월 말 278bp까지 축소
    - 신용스프레드 추이: 431bp(2008년 12월 말) → 370bp(2009년 1월 말) → 278bp(2009년 2월 말) → 238bp(2009년 3월 24일)

<그림 1-9>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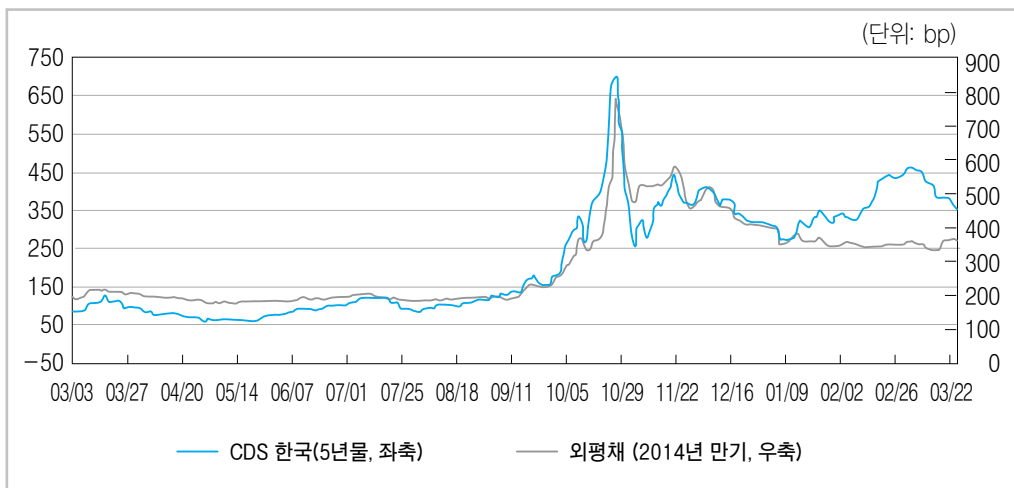
<그림 1-10> 신용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호전되어 오던 국가 신용위험도는 1월, 2월 중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 최근 환율 하락에 따라 개선되는 모습
- 외평채가산금리와 신용부도스왑(CDS)프리미엄은 2008년 11월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 2009년 들어 환율이 불안해짐에 따라 다시 상승
- 특히 CDS 프리미엄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컸었는데 최근 환율이 하락세로 접어들어 따라 CDS 프리미엄도 크게 하락
  - 외평채 가산금리(2014년 만기, bp): 404(2008년 12월 말) → 347(2009년 1월 말) → 350(2009년 2월 말) → 360(2009년 3월 24일)
  - CDS프리미엄(5년물, bp): 316(2008년 12월 말) → 331(2009년 1월 말) → 437(2009년 2월 말) → 353(2009년 3월 24일)

〈그림 1-11〉 외평채 가산금리 및 CDS 프리미엄 추이



자료: 국제금융센터

〈표 1-16〉 주요 금리 현황

(단위: 연리 %, 말일기준)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4일
콜금리(1일물) (A)	5.02	5.25	5.22	4.14	3.99	3.02	2.41	1.87	1.63
CD유통수익률(91일)	5.82	5.79	5.83	5.98	5.45	3.93	2.96	2.49	2.43
CP유통수익률(91일)	6.52	6.19	6.67	7.38	7.25	6.49	3.99	3.19	3.12
국고채(3년)(B)	5.74	5.77	5.74	4.47	4.87	3.41	3.59	3.82	3.64
회사채(3년, AA-) (C)	6.77	7.34	7.76	8.13	8.91	7.72	7.29	6.60	6.02
B-A(%P)	0.72	0.52	0.52	0.33	0.88	0.39	1.18	1.95	2.01
C-A(%P)	1.75	2.09	2.54	3.99	4.92	4.70	4.88	4.73	4.39
C-B(%P)	1.03	1.57	2.02	3.66	4.04	4.31	3.70	2.78	2.3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1월 중 예금은행의 수신 평균금리 및 대출 평균금리는 하락세를 지속

- 예금은행 저축성수신 평균금리(금융채 포함)는 전월에 비해 1.42%p 하락
  - 정기예금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금리도 하락하여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전월에 비해 1.42%p 하락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가 1.40%p 하락
  -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전월보다 1.48%p 하락한 3.91%
- 대출 평균금리도 하락세를 지속하여 1월 들어 전월에 비해 0.98%p 하락
  - 기업대출금리는 0.93%p 하락하였으며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대출금리의 하락폭이 컸음(대기업 0.67%p 하락, 중소기업 1.03%p 하락).
  - 가계대출 금리는 1.17%p 하락: 주택담보대출 1.18%p 하락 및 신용대출 1.26%p 하락



〈표 1-17〉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단위: 연%, %p)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2월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월중증감
저축성수신평균금리 <sup>1)</sup>	4.60	5.84	5.91	6.05	6.31	5.95	5.58	4.16	-1.42
순수저축성예금	4.53	5.74	5.77	5.99	6.27	5.93	5.66	4.26	-1.40
시장형금융상품	4.66	6.01	6.10	6.15	6.38	6.00	5.39	3.91	-1.48
대출 평균금리 <sup>2)</sup>	6.19	7.08	7.31	7.44	7.79	7.53	6.89	5.91	-0.98
기업대출	6.30	7.16	7.30	7.44	7.80	7.51	6.87	5.94	-0.93
(대기업)	5.88	6.77	6.86	7.09	7.69	7.37	6.75	6.08	-0.67
(중소기업)	6.40	7.27	7.50	7.60	7.86	7.56	6.91	5.88	-1.03
가계대출	5.97	6.99	7.35	7.45	7.77	7.62	7.01	5.84	-1.17
(주택담보대출)	5.88	6.85	7.16	7.25	7.58	7.42	6.81	5.63	-1.18
(신용대출)	6.13	7.20	7.63	7.72	8.06	7.94	7.19	5.93	-1.26
공공·기타대출	5.45	5.14	6.65	6.96	7.40	7.40	6.53	5.57	-0.96

주: 1) 예금은행 수신상품 중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제외

2)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 (3) 기업 및 가계의 자금조달

#### ■은행 기업대출은 2월 들어 증가폭 둔화

-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은 1월 5조8천억 원 → 2월 1조5천억 원으로 둔화
  - 대기업 대출은 회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조3천억 원 감소
  - 중소기업 대출은 정부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조치 등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2조8천억 원 증가
- 1월 들어 회사채·CP·주식 등의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은 소폭 증가

- 주식발행액은 증시 불확실성 증대로 2천억 원 증가에 그침.
- 회사채는 6조1천억 원의 순발행을 기록하여 1월 4조4천억 원의 사상최대치를 경신
- CP는 발행금리 하락 등 발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발행수요 둔화 등으로 9천억 원의 소폭 증가에 그침.

〈표 1-18〉 기업 자금조달 추이

(단위: 조 원, 기간 중 말잔 증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 2월 말 잔액
	연중	2월	연중	2월	12월	1월	2월	
원화대출 <sup>1)</sup>	73.7	5.4	68.6	4.1	-6.6	5.8	1.5	467.1
(중소기업)	65.1	4.7	45.0	3.2	-3.8	2.6	2.8	405.7
(대기업)	8.5	0.7	23.6	0.9	-2.8	3.3	-1.3	61.4
사모사채인수 <sup>2)</sup>	-6.3	-0.2	-4.5	-0.7	-0.7	-0.3	-0.2	19.8
CP순발행 <sup>3)</sup>	3.8	-0.1	13.4	0.4	1.6	6.1	0.9 <sup>5)</sup>	38.8 <sup>5)</sup>
회사채순발행	-1.8	-0.2	9.1	0.5	2.6	4.4	6.1	
주식발행 <sup>4)</sup>	6.5	0.2	4.0	0.5	0.3	0.4	0.2	

- 주: 1) 예금은행(은행신탁포함, 산업은행 제외)  
 2) 국내예금은행 원화사모사채(산업은행 제외)  
 3) 은행연합회의 CP거래정보 기준  
 4)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합계  
 5) 2월 20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 2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2월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의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의 1조8천억 원 증가에서 3조3천억 원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
  -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은 소득세 환급 및 2008년 2학기 학자금대출채권 양도 등으로 전월에 이어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축소

〈표 I -19〉 은행의 가계대출

(단위: 조 원, 기간 중 말잔 증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
	연중	2월	연중	2월	12월	1월	2월	2월 말 잔액
은행 가계대출 *	17.8	1.9	25.0	2.3	1.6	-1.6	2.8	389.7
(주택담보대출)	4.6	0.4	18.1	0.8	2.3	1.8	3.3	244.8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3.0	1.5	6.8	1.5	-0.8	-3.2	-0.3	143.3

주: \* 는 신탁포함, 중별대출은 신탁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 (4) 자금흐름 동향

■ 2월 중 은행 수신은 큰 폭 증가로 전환되고, 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세 지속

- 2월 중 은행 수신은 전월에 비해 큰 폭 증가로 전환

- 은행 수신 증가폭: +15조6천억 원(2008년 12월) → -5조5천억 원(2009년 1월)  
→ +20조6천억 원(2009년 2월)
- 수시입출식예금이 월말 휴일에 따른 결제지연, 세금환급 등 계절요인 등으로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

- 자산운용사 수신도 2월 들어 증가세 지속

- 자산운용사 수신: -9조 원(2008년 12월) → -4조9천억 원(2009년 1월) → +9천억 원(2009년 2월)
- MMF로 개인 및 기업의 단기여유자금에 대폭 유입된 데 기인
- 반면 주식형펀드는 주가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이어 감소세 지속
- 그 외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도 2월 들어 감소세 시현

〈표 1-20〉 주요 금융기관 수신 현황

(단위: 조 원, 기간 중 말잔 증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
	연중	2월	연중	2월	12월	1월	2월	2월 말 잔액
은행 수신	51.0	6.2	95.5	8.9	-11.1	-5.5	20.6	921.5
수시입출식 *	-6.9	1.6	11.5	3.5	0.2	-0.1	15.7	259.2
정기예금	11.8	2.8	61.8	3.1	-1.0	2.6	4.9	344.0
단기시장성	28.2	-0.3	7.4	3.7	-6.4	-3.0	0.9	100.5
은행채	29.2	1.6	22.1	0.3	-0.6	-3.0	-2.0	154.5
자산운용사 수신	61.8	0.4	63.0	13.9	12.8	17.7	11.4	388.6
MMF	-10.4	-0.4	42.2	9.6	8.6	18.5	14.8	122.2
주식형	69.9	-0.2	23.9	3.4	0.6	-1.0	-1.1	138.1
채권형	-9.6	-2.0	-10.5	0.5	0.0	1.8	-1.2	31.0
혼합형	-3.3	-0.5	-5.4	-0.3	-0.9	-1.2	-0.7	37.3
신종펀드	15.3	3.6	12.9	0.7	4.5	-0.4	-0.4	60.0

주: \* 는 요구불예금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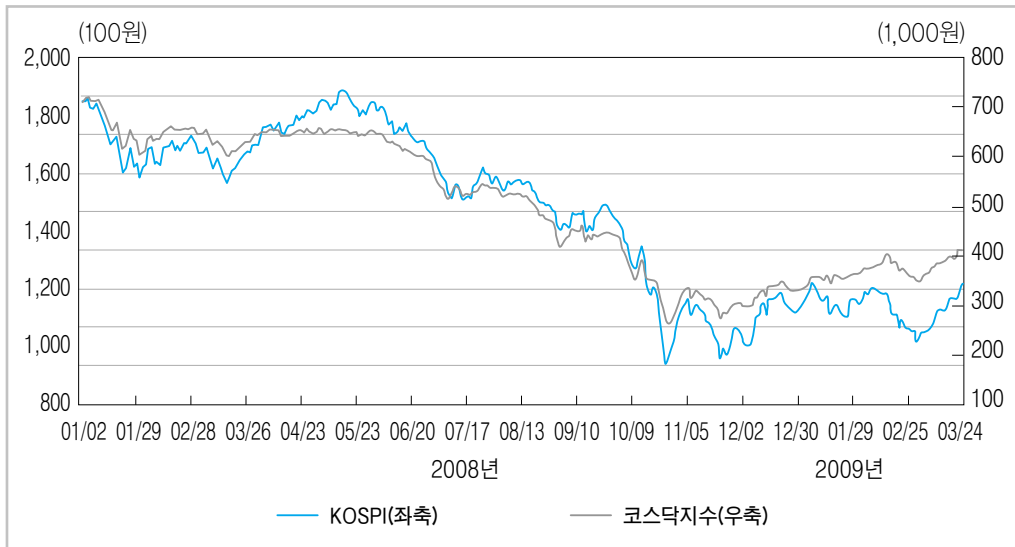
## (5) 주식시장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금융부실 우려로 침체되었던 증시는 3월 중순 이후 미국의 주택지표 호조, 미 재무부의 금융권 부실자산 매입방안 발표로 급등세

- 지난 1, 2월 중 주식시장은 각국의 경기부양 및 금융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본격화 등에 대한 우려로 등락을 반복
  - 코스피지수: 1,162.1(2009년 1월 말) → 1,063(2009년 2월 말)
  - 코스닥지수: 364.9(2009년 1월 말) → 363.2(2009년 2월 말)
- 국내 증시는 3월 들어 미국의 금융구제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등 호재로 상승세로 돌아선 후 3월 중순 이후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 시현

- 미국 기존주택판매의 예상 밖 호조, 미 재무부의 최대 1조 달러의 금융권 부실자산 매입방안을 발표(3월 24일) 등에 미국 증시는 급등세
- 코스피지수: 1,063(2009년 2월 말) → 1,092.2(3월 10일) → 1163.9(3월 17일) → 1221.7(3월 24일)
- 코스닥지수: 363.2(2009년 2월 말) → 377.9(3월 10일) → 394.7(3월 17일) → 412.4(3월 24일)

〈그림 1-12〉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1-21〉 주식시장 주요 지표

(단위: 조 원, 말일 기준)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4일
종합주가지수(KOSPI)	1,897.1	1,448.1	1,113.1	1,076.1	1,124.5	1,162.1	1,063.0	1,221.7
거래대금	3.7	5.4	9.0	5.1	3.2	3.9	3.5	5.8
시가총액	951.9	736.6	566.4	554.1	576.9	598.1	547.0	629.0
연월 중 외국인순매수(억 원)	22,910.0	-1,032.0	3,229.0	2,765.0	1,935.0	392.0	-49.0	3,831.0
코스닥지수(KOSDAQ)	704.2	440.8	308.0	307.5	332.1	364.9	363.2	412.4
거래대금	1.3	1.3	0.9	1.1	1.1	1.2	1.2	1.6
시가총액	99.9	67.3	47.4	41.9	46.1	51.5	51.5	58.8
연월 중 외국인순매수(억 원)	133.0	-668.0	15.0	-17.0	45.0	-170.0	36.0	-35.0
고객예탁금	9.7	9.4	10.0	9.6	9.3	10.0	10.3	12.0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 5. 외환시장

### (1) 원화 환율

■ 연초 금융위기 불안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은 3월 이후 해외여건 개선 및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하락세 반전함.

- 1월 중 원/달러 환율은 경기침체 우려와 금융위기 불안의 가중으로 급등세를 유지하다 월말 들어 수출업체와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유입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임.

- 연초 글로벌 증시 상승과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에 힘입어 하락세로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과 저조한 기업실적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증폭되면서 급등 추세를 보임.

\* 원/달러 환율: 1,257.5원(1월 2일) → 1,344.6원(1월 15일) → 1,391원(1월 28일)

- 그러나 월말 들어 수출업체들의 네고물량과 외국인의 증권투자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세를 기록함.

- 2월 중 원/달러 환율은 초반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에 힘입어 보합세를 보였으나 이후 동유럽 국가부도 위기와 미국 금융시장 불안감 확대 등 해외악재가 겹치면서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시현함.
  - 초반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증시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에 힘입어 1,375~1,400원대에서 보합세를 보였으나 중반 들어 미국의 경기부양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시장 불안이 확대되면서 상승세로 전환
  - 이후 동유럽 국가부도 가능성, 미국 시티그룹의 국유화 및 AIG 추가 구제금융지원, 일본 경기불안 가능성, 중국 재정지출의 불확실한 경기부양 효과 등 해외악재가 겹치면서 급등세를 보여 월말 1,500원대를 돌파함.
- 3월 중 원/달러 환율은 월초 대내외 여건 불안으로 한때 1,600원선에 근접했으나 이후 해외여건 개선과 무역수지 흑자 기조 지속 등에 힘입어 하락세로 돌아섬.
  - 대내외 불안심리의 지속으로 원/달러 환율은 월초 연중 최고치인 1,573.60원을 기록하며(3월 3일) 불안한 모습을 보임.
  - 그러나 이후 차익매물 실현과 미국 금융기관들의 실적 개선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 호조, 3월 무역수지 흑자 예상, 미 연준의 장기국채 매입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세 시현

〈표 1-22〉 원/달러 환율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1월	2월	3월
원/달러 환율	929.2	1029.3	1019.1	1041.5	1,130.4	1,326.9	1,390.1	1,373.8	1,102.6	1,346.1	1,429.5	1,461.9
(전기평균대비, %)	-2.8	-0.7	-1.0	2.2	8.5	17.4	4.8	-1.2	18.7	-2.0	6.2	2.3
원/100엔 환율	789.8	963.0	954.2	953.0	1,060.6	1,327.1	1435.1	1,503.3	1,076.6	1,487.2	1,546.1	1,495.7
(전기평균대비, %)	-3.9	-3.1	-0.9	-0.1	11.3	25.1	8.1	4.8	36.3	-1.1	4.0	-3.3

주: 2008년 2월 현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연초 지속되던 엔화 강세 분위기는 3월 중반 이후 일본 경기침체 가능성 확산 등으로 하락세 반전

- 1월 중 원/엔 환율은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으로 엔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세를 지속

• 원/엔 환율: 1,384.91원(1월 2일) → 1,520.98원(1월 30일)

- 2월 중 금융불안 등의 심화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확대되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원/엔 환율은 3월 들어 일본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락세로 반전함.

• 원/엔 환율: 1,540.65원(2월 2일) → 1,564.55원(3월 2일) → 1,414.80원(3월 31일)

• 3월 초 3월 위기설의 영향 등으로 원/엔 환율은 급등 현상을 보였으나 중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며 4월 3일 현재 1,353.83원을 기록함.

■ 연초 1,750~1,850원대에서 등락하던 원/유로 환율은 2월 중반 이후 잠시 급등세를 보였으나 3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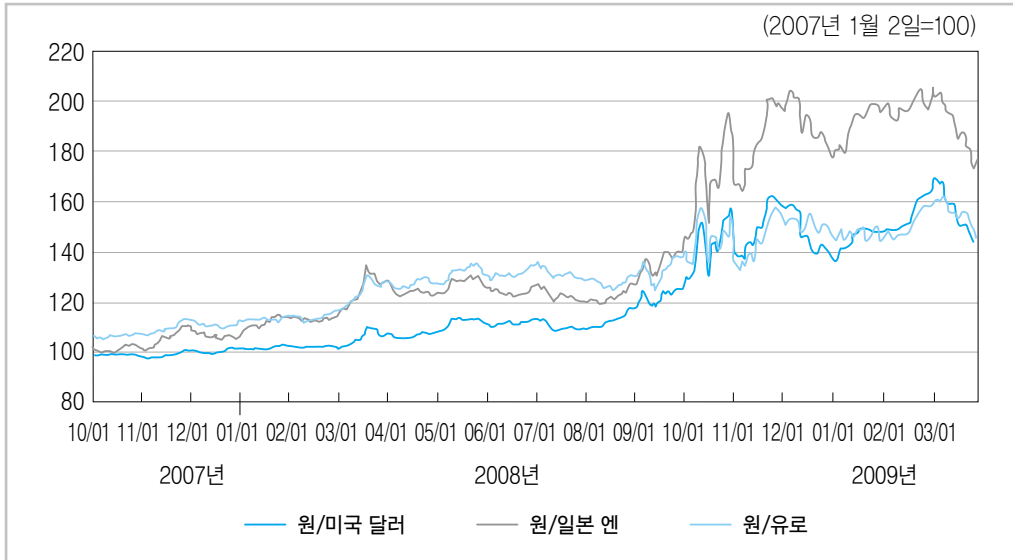
- 연초 원/유로 환율은 원화와 유로화의 대달러 약세 기조가 겹치는 가운데 시장의 불안심리가 확대되면서 전반적 상승 기조를 보임.

- 3월 이후 유로지역 경제의 침체 가속화와 이로 인한 추가적 금리인하 및 양적 팽창 정책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면서 원/유로 환율이 하락세로 반전함.

• 원/유로 환율: 1,768.72원(1월 30일) → 1,930.07원(2월 27일) → 1,816.39원(3월 31일)



〈그림 1-13〉 주요 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 자본 유출입 현황

■ 1~2월 중 자본수지는 9.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올해 1월 흑자 전환했던 자본수지는 2월 들어 다시 적자 반전함.
  -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극대화되던 지난 4/4분기 자본수지 적자가 급증하면서 2008년 자본수지는 509.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올해 1월 들어 증권투자수지와 기타투자수지가 개선되면서 자본수지는 48.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그러나 2월 중 증권투자수지의 순수입이 크게 줄면서 자본수지는 33.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직접투자수지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불안으로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가 모두 지속적인 둔화세를 보이면서 1~2월 들어 6.1억 달러의 순수출을 기록함.

- 증권투자수지는 외국인증권투자가 1~2월 중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전환되면서 흑자폭이 크게 감소함.
  - 증권투자수지: 60.1억 달러(1월) → 1.6억 달러(2월)
  
- 기타투자수지는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상황 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9.9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축소됨.
  - 금융기관 해외차입 상황규모: 72.9억 달러(1월) → 1.6억 달러(2월)
  
-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제고를 목적으로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2월 26일).
  
-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의 국채 및 통안채 투자에 대한 세제 개선 방안과 해외동포의 국내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및 외환거래 규제 완화 등이 있음.
  - 외국인의 국채·통안채 투자의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면제되며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 해외동포 자금의 국내투자 유인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혜택 부여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의 대폭 인하,<sup>4)</sup> 외국인투자 절차의 개선 등<sup>5)</sup>
  - 그 외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수신 증대와 공기업 및 국내은행의 해외차입 원활화를 위한 관련 규제의 개선방안이 포함됨.
  
- 이 같은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은 국내자산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증대시켜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에 일정 부문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채 및 통안채 관련 제도개선은 자산으로서의 국채 및 통안채의 국제경쟁력을 개선시켜 2008년 하반기 이후 자본수지 불안의 주요 요인이던 외국인의 채권매도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동포 자금의 유입이 더욱 활성화될 경우 국내부동산 시장 경기의 개선 및 자본시장 안정화에 일정 부문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4)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 신설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며, 현행 20%인 원천과세 세율은 5%로 인하됨.

5) 외국인투자자 등록 및 투자전용계좌 개설 절차의 면제 등이 포함됨.

- 반면 국내 자본시장의 불안이 국내여건보다는 해외 신용경색에 기인함을 감안할 때 위 방안의 정책적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표 I -23〉 자본 유출입 추이 \*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자본수지	62.3	4.0	-56.3	-52.3	-418.05	-509.3	51.4	-33.2
직접투자수지	-137.0	-47.9	-29.1	-22.8	-6.07	-105.9	-0.6	-5.5
(내국인해외투자)	-152.8	-41.2	-27.0	-39.2	-20.61	-127.9	-3.4	-7.6
(외국인국내투자)	15.8	-6.7	-2.1	16.3	14.54	22.0	2.9	2.2
증권투자수지	-190.9	-110.7	60.0	-127.7	10.21	-153.7	60.1	1.6
내국인증권투자	-424.1	69.8	-6.7	55.2	184.14	230.9	9.4	14.8
(주 식)	-524.4	-7.2	-25.7	29.9	67.05	63.6	5.0	10.8
(채 권)	100.2	77.0	19.0	25.2	117.10	167.3	4.4	4.0
외국인증권투자	233.2	-180.4	66.6	-182.9	-173.93	-384.6	50.7	-13.2
(주 식)	-287.3	-168.9	-52.5	-138.0	-53.05	-412.5	4.2	-3.7
(채 권)	520.5	-11.5	119.1	-44.8	-120.88	27.9	46.5	-9.5
기타투자수지	414.1	164.9	-76.7	135.2	-338.87	-106.0	-9.9	-4.8
내국인기타투자	-184.2	-46.0	-50.4	-40.6	4.29	-133.1	-6.5	-13.0
(대 출)	-103.3	-6.4	-25.0	-22.3	-33.38	-87.5	-22.9	-1.3
외국인기타투자	598.4	210.9	-26.3	175.8	-343.16	27.1	-3.4	8.2
(차 입)	415.5	146.7	-9.2	106.0	-449.59	-195.8	-72.9	-1.6
자본이전 및 비금융자산취득수지	-23.9	-2.4	-2.3	-2.2	6.51	-0.4	1.4	3.4
자본이전수지	-23.4	-1.7	-1.9	-2.2	6.75	1.0	1.5	3.2
비생산·비금융 자산순취득	-0.5	-0.6	-0.5	0.0	-0.23	-1.4	-0.1	0.1

주: 1) \* 는 순유출입액 기준으로 (+)는 순유입, (-)는 순유출, 2)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6. 해외경제

### (1) 주요국 경제

■미국경제: 경제 침체기조 심화

- 4/4분기 실질GDP는 실물경기 침체로 -6.3%의 큰 폭으로 하락
  - 산업생산은 자동차부문의 큰 폭의 감소로 1월에도 -1.8%의 감소세가 지속
  -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시장이 더욱 악화되어 4/4분기 실업률은 전 분기 대비 0.9%p 증가한 6.9%를 기록하고, 1,2월에도 각각 7.6%, 8.1%를 기록함.
  - 금융불안에 따른 실업률 상승,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신뢰지수는 2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로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40.7(4/4분기) → 37.4(1월) → 25.0(2월)].
  - 소비자물가지수는 경기위축 등으로 4/4분기 1.6%에서 1월 0%로 상승폭이 크게 하락

〈표 1-24〉 미국의 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질GDP <sup>1)</sup>	2.2	0.9	2.8	-0.5	-6.3	1.1		
산업생산 <sup>2)</sup>	2.1	-0.1	-0.2	-1.8	-0.7	-1.8	-1.8	
소비자물가	2.9	4.0	4.4	5.3	1.6	3.8	0.0	
실업률(%)	4.6	4.9	5.3	6.0	6.9	5.8	7.6	8.1
소비자신뢰지수 <sup>3)</sup>	103.4	76.5	57.3	57.3	40.7	58.0	37.4	25.0
무역수지(억 달러)	-8,194	-2,110	-2,151	-2,148	-1,744	-8,212		

주: 1) 전기비연율 2) 분기수치는 전기비 연율 3) Conference Board(1985=100)

자료: 한국은행, 미 연준(Federal Reserve Bulletin)

■ 일본경제: 경기부진심화

- 4/4분기 실질GDP는 엔화강세로 인한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 등으로 -3.3%의 큰 폭으로 감소하여 경기둔화세가 확대됨.
  - 4/4분기 감소세를 보인 광공업 생산은 1월에도 수송기계 및 전기기계 생산의 하락으로 감소세가 계속 유지
  - 소비자물가는 석유제품가격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4/4분기에는 오름세가 둔화되고 1월에는 전년동기 대비로 변동이 없음.
  - 최근 고용시장은 4/4분기와 1월에 실업률에 변동이 거의 없으나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임금상승 부진 등으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세계경제 침체 여파로 미국과 유럽지역 수출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1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45.7%의 큰 폭의 감소를 기록

〈표 I -25〉 일본의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실질GDP <sup>1)</sup>	2.1	0.6	-1.0	-0.5	-3.3	-0.7	-
광공업생산 <sup>2)</sup>	2.7	-0.7	-0.8	-1.3	-11.9	-3.3	-10.0
소비자물가	0.0	1.0	1.4	2.2	1.0	1.4	0.0
실업률(%)	3.9	3.8	4.0	4.1	4.0	4.0	4.1
수출	11.6	6.0	1.8	3.2	-23.1	-3.4	-45.7

주: 1) 전기비연율 2) 전기비율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금융경제통계월보)

■ EU 경제: 경기침체

- 경기침체 및 신용경색 심화로 EU 성장률은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4/4분기에는 -1.5%로 하락
  - 3/4분기에 해외수요 위축으로 부진했던 산업생산은 4/4분기에도 내구재생산의 감소를 중심으로 -5.1%로 하락폭 확대
  - 소비자물가는 음식료품목을 중심으로 4/4 분기와 1월에 증가세가 둔화(2008년 4/4분기 2.6% → 2009년 1월 1.1%)
  - 경기침체로 인하여 유로지역 실업률은 4/4분기와 1월에 계속하여 증가세 유지
  - 경기체감지수는 소비자 물가의 계속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생산 및 인력 감축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임.

〈표 1 -26〉 EU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실질GDP	2.6	0.7	-0.2	-0.2	-1.5	0.7	-
산업생산	3.4	0.1	-1.6	-2.0	-5.1	-1.7	-
소비자물가 <sup>1)</sup>	2.1	3.3	3.6	3.9	2.6	3.3	1.1
실업률(%)	7.4	7.2	7.4	7.5	7.9	7.5	8.2
경기체감지수(ESI) <sup>2)</sup>	109	100.5	96.5	88.5	74.0	89.9	67.1
수출 <sup>1)</sup>	8.3	7.2	6.6	4.6	-3.5	3.7	

주: 1) 전년동기 대비 2) 100 기준

자료: European Central Bank(ECB) Monthly Bulletin, Eurostat

### ■ 중국경제: 성장둔화세 지속

- 중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계속 둔화되어 4/4분기에는 6.8%로 전 분기에 비해 크게 하락
  - 해외수요 부진과 기업 재고조정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가 둔화되고, 소비·투자 등 내수도 부진하여 성장률이 크게 감소
  - 이에 따라 산업생산의 증가율도 6.4%로 큰 폭으로 하락  
16.6%(2008년 1/4분기) → 15.9%(2/4분기) → 13%(3/4분기) → 6.4%(4/4분기)
  - 소비자물가는 4/4분기에 2.5%, 1월에는 1%로 오름세가 둔화
  - 대외여건의 악화 및 기업수익률 저하 등으로 수출이 감소되어 1월의 무역수지 흑자는 12월의 390억 달러와 같은 수준인 391억 달러로 발표됨.
  - 총통화 증가율도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으로 증가세가 지속됨.

〈표 1-27〉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실질GDP	11.4	10.6	10.1	9.0	6.8	9.0	-
산업생산	18.5	16.4	15.9	13.0	6.4	12.9	
소비자물가	4.8	8.0	7.8	5.3	2.5	5.9	1.0
M2	16.7	17.6	17.5	15.9	15.9	7.8	18.8
고정자산투자 *	26.1	26.1	25.9	26.8	27.6	26.1	
무역수지(억 달러)	2,622	415	582	833	1,143	2,954	392

주: \* 는 누계기준

자료: 중국국가통계국(통계공보)

〈표 1-28〉 각국의 경기부양대책

- 미국정부는 실물경기 부양을 위해 자동차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포함한 금융안정화대책과 재정지출대책 등을 발표
  - 미국정부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실물경제의 악화를 우려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속
    - Big3 자동차 제조회사(GM, 포드, 크라이슬러)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자산 구제금융 프로그램(TARP, 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 자금으로 14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법안이 의결되어 하원에서는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12월 12일)
    - 하지만 TARP 자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GM 및 크라이슬러에 대해 총 174억 달러를 지원하는 구제방안을 발표(12월 19일)
    - 미 연준, GMAC 파산 시 악영향을 우려하여 GM의 지분감축 등을 포함한 GMAC의 은행지주회사 전환 신청을 승인(12월 24일)
    - 재무부는 TIP(Target Investment Program) 제도에 의해뱅크어브어메리카의 우선주 200억 달러를 추가매입하고, 크라이슬러에 대해서는 금융자회사에 15억 달러를 대출하는 방식으로 지원(1월 16일)
  - 또한 실물경기부양을 위해 금융안정화대책과 대규모 재정지출 대책들을 잇달아 발표
    - 미 연준은 11월 25일 발표된 기간자산 담보부 대출창구(TALF, Term ABS Loan Facility) 제도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009년 2월 중 시행한다고 발표(12월 19일)
    - 4개 투자매니저(Investment Manager)가 프라이머리 딜러를 통해 5,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기관 보증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를 매입하도록 하는 등 MBS 매입 프로그램의 세부방안을 발표(12월 30일)
    - 미 하원은 6,070억 달러 재정지출안과 2,120억 달러의 감세안이 포함된 총 8,1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의결을 찬성 244표, 반대 188표로 의결(1월 28일)



- 상·하원은 재정지출 5,753억 달러와 감세 2,118억 달러의 총 7,872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을 최종 의결하였으며 Obama 대통령이 2월 17일 동 법안에 서명(2월 13일)
- 재무부는 저금리 모기지로의 차환 기회 제공, 모기지 상환 부담의 완화, 모기지금리 하락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소유자 지원 대책을 발표(2월 18일)
- 또한 정부보유 시티그룹 우선주 2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민간보유 우선주의 보통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전환가격은 주당 3.25달러로 결정(2월 27일)
- 3,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국채를 매입하고 TALF를 통해 7,500억 달러의 모기지 담보증권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3월 18일)

■ 일본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안정화방안을 추진하고, 외환시장 개입의 가능성을 시사

- 경기침체가 계속 심화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공적자금 등으로 직접 지원하는 금융안정화방안을 추진
  - 수출 및 광공업생산이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하여 4/4분기 기업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12월 1일)
  - 일본은행은 기업채무 담보대출제도 시행으로 1월 8일 최초로 1조2,248억 엔을 금융기관에 공급
  - 일본정부는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하에 자본 부족에 처한 기업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1월 27일)
  -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의 시장리스크를 줄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최대 1조 엔 규모로 2010년 4월 말까지 매입하기로 결정(2월 3일)
  - 또한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자금조달지원을 위한 주요 조치의 적용기간을 최대 반 년간 연장하고 매주 4천억 엔 정도의 단기국채매입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2월 13일)

- 일본은행은 신용스프레드 확대, 회사채 발행 어려움 등의 자금지원을 위한 주요 조치의 적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1조 엔 규모의 회사채 직접 매입을 결정(2월 19일)
  - 일본정부는 기업대출 축소 등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정책투자은행을 통한 기업자금지원 한도의 확대를 검토하고 은행보유주식 취득기구의 기능 확대로 시장에서 직접주식매입(일본경제신문 2월 27일)
- 세계경제 둔화와 엔화 강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
- 시라타와 일본은행 총재는 “세계경제 둔화와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에 의한 경기침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1월 4일)
  - 또한 정책금리의 금리정책보다는 다양한 지원 수단을 이용한 금융시장 안정 유지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에 정책에 중점
- 유럽집행위원회는 경기부양대책과 금융시스템 강화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기준금리 인하함.
-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는 경기부양대책과 금융감독시스템 강화를 위한 방안 발표
- EU 27개국 정상회의에서 2,0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대책과 지구온난화대책 등에 합의(12월 11일~12일)
  - 유럽집행위원회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통한 대출증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27개 유로 전회원국 전체에 적용될 은행부실자산의 구체적 세부적 처리지침을 마련(2월 25일)
  - 또한 재정수지 평가대상에 포함된 17개 회원국 중 6개국이 2008년 EU의 재정수지 적자 기준(GDP의 3% 이내)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2월 18일)
  - 최근에는 금융위기 대응능력 제고 등을 위한 금융감독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3월 4일)

- 경기침체 및 신용경색이 심화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함.
  - 유럽중앙은행(ECB)은 대기성 예대금리를 각각 1%p 조정하여 2009년 1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
  - 이번 조치로 예대금리 차이가 2%p로 다시 확대되고 은행 간 대출 확대 및 단기금리시장 활성화를 기대
  - 유럽중앙은행(ECB)은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여 정책금리를 현 2.5%에서 2%로 인하(1월 15일)
  -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정책금리를 1.5%에서 1%로 인하한 반면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회는 2%의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2월 5일)
  - 영란은행은 금융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매입제도 (Asset Purchase Facility)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발표(2월 6일)

■ 중국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금융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중국정부는 높은 성장률 유지하고 내수부양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
  -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업 관련 정책 완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대 조치 발표(12월 24일)
  -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수출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큰 553개 제품에 대해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여 시행한다고 발표(12월 29일)
  - 국무원은 자동차 및 철강 산업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감면 및 보조금 지급, 수출관세 인하 등의 지원책 발표(1월 14일)
  - 또한 소비진작을 위해 전 7,570만 명에게 1인당 100~180위안의 소비보조금지급 및 소비쿠폰 발행으로 춘절 연휴기간 중 소매판매가 13.8% 증가했다고 발표(2월 2일)
  - 국무원은 고용안정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경공업 제품에 대한 가공무역 제한을 폐지 등의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노후설비를 폐지하고 신규 설비 도입을 촉진(2월 19일)

- 인민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한 대출관련 규제 완화 등의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중국 국무원은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제고와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와 소비확대를 위한 할부금융 확대를 포함한 경제발전 지원을 강화하는 9대 금융조치 발표(12월 3일)
  - 인민은행은 금융부분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추가적인 경기하강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2월 23일)
  - 원자바오 총리는 “내수 확대 및 안정적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시스템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올해 성장률 목표를 8%로 제시

## (2) 원유 및 국제원자재

### ■ 유가는 하락세가 진정되고 원자재 가격은 하락 추세

- 국제유가는 하반기 세계경제 둔화세가 심화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12월부터는 하락세가 진정됨.
  - 미 원유제고 감소 및 휘발유 소비 증가 소식, OPEC 추가 감산 등으로 국제유가는 최근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40.5달러(2008년 12월) → 44.9달러(2009년 1월) → 44.5달러(2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 우려, 중동지역 긴장 고조, 미 휘발유 및 중간유분 제고 증가폭 예상 하회 등으로 상승(12월 31일)
  - 2월 20일 기준으로 원유가격은 미 휘발유 재고가 감소하고 OPEC의 추가 감산 가능성으로 상승(2월 27일)
  - Ali Khatibi OPEC 이사는 “OPEC가 75달러까지 원유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감산할 것이며 75~100달러가 적정 수준”이라고 발언(3월 12일)
  - CRB선물지수는 곡물, 산업용 원자재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금선물은 금융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경향 강화, WGC(World Gold Council)의 투자 수요 증가 발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에서의 금비중 확대 계획 등으로 지속적 상승세가 계속

〈표 1-29〉 유가 및 CRB지수(기말기준)

(단위: \$/배럴, 1967=100)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2월	12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유가현물(Dubai)	58.7	85.7	127.9	131.3	113.0	96.3	67.7	50.0	40.5	44.9	44.5	
CRB선물지수 *	307.3	358.7	462.7	416.4	391.7	345.5	268.4	242.2	229.5	220.4	211.6	
금선물	638.0	838.0	928.3	913.9	831.2	874.2	718.2	816.2	884.3	927.9	942.4	

주: \* 는 CRB선물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품목의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1967년=100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CRB

## 제Ⅱ장

#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2. 2009년 경제전망

## 1. 대내외 여건

### (1) 대외여건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로 2009년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됨.  
(IMF는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1.0~-0.5%로 전망)

#### - 미국경제

- 지난해 4/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6.3%로 급락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중에도 성장률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일 전망
- 올 들어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도 각각 크게 감소하고 생산 감축이 진행되면서 신규실업수당 청구자수가 증가하고 2월의 실업률도 7.6%에서 8.1%로 대폭 상승하는 등 고용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
- 하지만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기대되는 하반기 중에는 성장률이 소폭 회복될 전망. IMF는 2009년 미국 성장률을 연간 -2.6%로 전망

#### - 일본경제

- 세계경제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엔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대폭 감소하고 설비투자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될 전망. 기업 경상이익 감소세도 큰 폭으로 확대
- 일본정부는 공적자금을 통한 주식매입 및 기업자금지원 확대, 회사채 매입을 통하여 실물경제 부양에 노력
- IMF는 일본 성장률을 2008년 -0.7%에서 2009년에는 -5.8%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

#### - 유로지역경제

-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부진과 이에 따른 실업률 상승과 내수침체가 확대되면서 2009년 유로지역 성장률은 지난해에 비해 더욱 악화될 전망(IMF는 유로지역 성장률을 2008년 0.9%에서 2009년에는 -3.2%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
- EU 집행위원회는 금융위기 대응능력 제고 등을 위해 금융감독시스템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대책 강구

－ 중국경제

-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 및 금융완화를 통해 2009년 약 8%대의 성장률을 목표
- 이미 발표된 경기대책에 힘입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시장에서의 대외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성장률 둔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상반되고 있음.
- IMF는 해외수요 둔화로 인한 수출감소의 영향으로 2009년 중국 성장률이 6.7%에 그칠 것으로 전망

〈표 II-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단위: %)

구 분	2008년 <sup>2)</sup>	2009년		2010년	
		IMF	OECD <sup>1)</sup>	IMF	OECD <sup>1)</sup>
세계성장률	3.2	-1.0~-0.5	-0.4	1.5~2.5	1.5
미국	1.1	-2.6	-0.9	0.2	1.6
일본	-0.7	-5.8	-0.1	-0.2	0.6
유로	0.9	-3.2	-0.6	0.1	1.2
중국	9.0	6.7	8.1	8.0	

주: 1) OECD 전체에 국한된 성장률 전망 통계임.

2) 2008은 IMF 통계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Mar. 2009.

OECD, OECD Economic Outlook, Update Dec. 2008.

■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연평균 55달러/배럴 수준이 될 전망

－ 지난해 7월 이후 급속도로 하락해 온 국제유가가 최근 경기회복 기대감, OPEC의 추가 감산 등을 배경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부양노력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과 이에 따른 석유제품의 수요증가 등에 대한 기대
- 석유시장의 초과공급 상황에서의 OPEC의 추가 감산 그리고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



- 이에 따라 하반기 중 국제유가는 상승압력을 받겠지만 올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유가의 상승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
  -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볼 때 1/4분기 평균 45달러/배럴에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 연평균 약 55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국제금융시장은 동유럽의 금융위기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금융시장 안정 노력 강화로 점차 안정될 전망
- 미국의 3월 현재 금리는 0~0.25%의 제로금리상태로 미 연준은 금리정책보다는 금융안정화대책과 경기부양대책을 병행
  - 이에 따라 기존의 TARP을 수정·보완한 금융안전대책과 함께 2월 상·하원은 7,872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최종의결
  - 향후 6개월 동안 3,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국채를 매입하고 TALF를 통해 7,500억 달러의 모기지 담보증권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
- 일본은행은 2월 27일 콜금리를 종전과 같은 0.1%로 동결함.
  - 현재 낮은 정책 금리로 인하여 다른 형태의 금융시장 안정 및 기업자금조달에 정책에 초점을 둠.
  - 따라서 1조 엔 규모의 은행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자본확충 및 대출활성화 등의 금융시스템 안정화 방안을 검토
- ECB는 1월에 기준금리를 0.5%p를 인하하여 2%로 낮춤.
  - ECB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지 미리 결정한 바는 없지만, 추후 발표되는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한 정책 대응을 시사
  -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제로금리정책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향후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음.
- 인민은행은 지난해 9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예금 기준금리는 2.25%, 기준율은 15.5%로 인하하면서 과감한 금융완화 조치를 단행

- 부동산 경기침체 및 해외수요 둔화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
-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투자지연 가능성 및 실물지표로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할 때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2) 대내여건

### ■ 정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감세 및 재정확대 정책 추진

- 2008년 9월, '2008 세제개편안'
  -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서 세율을 낮추거나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규모 감세(5년간 21조3천억 원)
- 2008년 11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 공공지출 확대 11조 원(SOC투자확대 4조6천억 원,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3조4천억 원, 공기업 투자확대 1조 원 등)
  - 세제지원 3조 원(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 2009년 2월,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미분양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미분양주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
  - 일자리 나누기 및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일자리 나누기 실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세제지원)
  -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 교육비소득공제 범위에 교복구입비용 추가)

### ■ 금통위, 기준금리 2%로 동결 가능성

-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기 회복지연으로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과도한 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필요 있음.

- 하지만 금리인하의 정책 유효성, 물가안정세 둔화, 환율불안 등이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 지난해 10월 초 5.25%였던 기준금리를 올 2월 2%로 공격적으로 내린 이후 정책의 유효성을 확인할 시차가 필요
  -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4%대로 반등하면서 경기회복에 무게를 둔 기준금리 인하 부담
  - 기준금리인하는 사실상 제로금리인 미국과의 금리차 축소를 초래하여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표 II-2〉 전망의 주요 전제

외생변수	단위	2008년	2009년
CALL(기준금리, 기말)	%	3.00	2.00
ER(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1.3	1300.0
GDPCH(중국 성장률)	%	9.0	6.7
GDPJP(일본 성장률)	%	-0.7	-5.5
GDPUS(미국 성장률)	%	1.1	-2.5
OIL\$DUBAI(두바이)	\$/bbl	96.8	55.0

## 2. 2009년 경제전망

### (1) 경제성장

#### ■ 상반기 경기침체 가속화로 2009년 실질GDP 3.7% 감소 전망

- 2009년 실질GDP는 상반기 국내 실물경제 침체가 가속화되어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투자 및 수출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3.7% 감소 전망
  - 민간소비는 생산이 급감한 제조업의 고용조정 가속화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내구재 중심의 소비 위축이 예상되면서 연간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는 60%대의 제조업 평균가동률,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급락추세 등을 감안할 때 2009년 두 자릿수의 큰 폭 감소(-11.2%) 전망
  -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건설수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예산 조기집행 및 공공부문 투자 확대에 의해 감소세가 축소될 전망(연간 -1.1%)
  - 재화 및 서비스의 실질 수출은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연간 9.7%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수입은 국내경기침체 및 고환율로 인해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12.4%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민간소비는 -3.9%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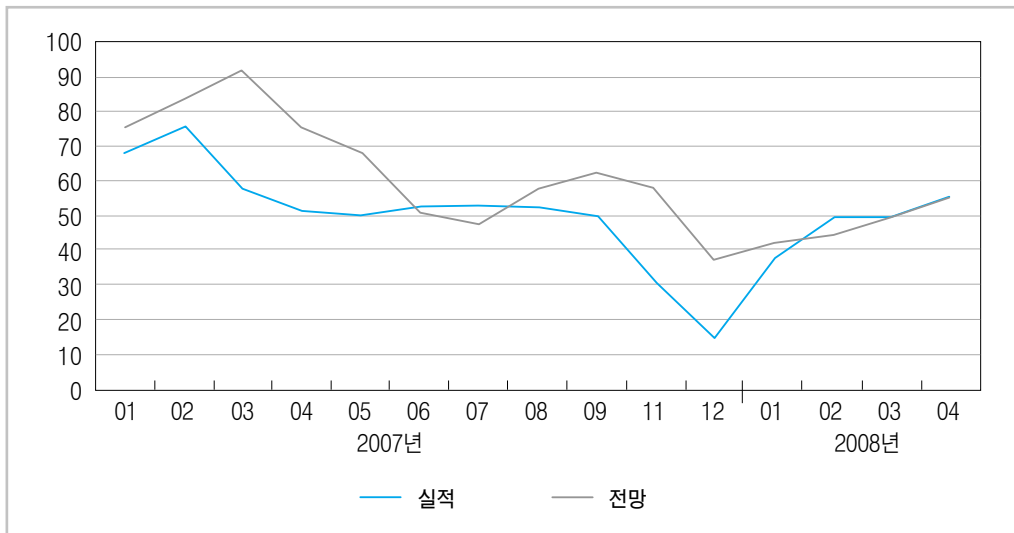
- 고용악화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 자산가격 하락, 가계대출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2009년 연간 -3.9%의 감소 전망
  - 단 정부의 내수진작정책과 재정정책 등이 하반기 민간소비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반기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소폭 개선될 전망: -5.3%(상반기), -2.5%(하반기)

#### ■ 2009년 건설투자 1.1% 감소 전망. 2008년(-2.1%)에 비해 감소세 완화

- 부동산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2009년 건설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부진이 지속될 전망

- 양도세, 재산세 및 규제완화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수요의 부진은 불가피. 16만 호 이상의 미분양 주택 문제, PF사업 위축 등이 건설투자 주요 감소요인
-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50을 기록해 일단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상승폭이 둔화. 3월 전망치도 저조. 건설업 체감경기의 큰 폭 회복은 어려울 전망

<그림 II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하지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SOC투자 확대가 민간건설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2008년(-2.1%)에 비해 감소세는 소폭 완화될 전망
  -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 「9·19 주택공급정책」(2008년 9월)에 의하면 2009년 중 수도권 공공택지에 15만 가구 공급계획
  - 2009년 본예산 중 교통물류에 배정된 금액은 24조7천억 원으로 전년(20조5천억 원)에 비해 20.2% 증액

■ 2009년 설비투자는 11.2% 감소 전망

- 설비투자조정압력의 하락, 60%대로 하락한 제조업평균가동률 등을 감안할 때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전망
  - 설비투자조정압력(제조업생산증가율-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은 생산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4/4분기 이후 큰 폭의 마이너스 기록
  -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지난해 2/4분기까지 80%대를 지속했으나 4/4분기 이후에는 60%대로 급락

〈표 II-3〉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3/4	4/4	1/4	2/4	3/4	4/4	1월
설비투자조정압력(a-b, %p)	0.4	5.9	4.8	2.8	0.3	-14.8	-24.5
a. 제조업생산증가율(%)	6.2	11.2	10.7	9.0	5.6	-11.3	-27.0
b.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	5.8	6.3	5.9	6.2	5.3	3.5	2.5
제조업 평균가동률(%)	80.0	81.0	81.1	81.0	78.3	69.3	61.5

자료: 통계청

- 실제로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내수부진과 수출감소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금과 같은 설비투자 부진이 단기간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
  - 설비투자 증가율: 9.3%(2007년) → -2%(2008년) → -11.2(2009년)

(2) 대외거래

■ 2009년 수출(국제수지 기준)은 -16.4%의 감소세를 보이고, 경상수지는 127.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수출수요가 급감

하면서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 1~2월 중 수출은 -25.5%의 감소세를 보임.

- 이러한 수출 감소세는 올해 3/4분기까지 지속되다가 4/4분기 이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이나 OECD 등 국제경제기구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동시에 미국의 민간 위축과 일본의 경기침체 가능성 확대 등은 우리 수출의 빠른 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
- 이러한 해외여건들의 악화로 수출은 당분간 두 자릿수 감소세 예상
- 그러나 올 하반기 금융부실자산의 정리와 그간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세계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수출시장의 여건도 개선되어 올 4/4분기 수출은 1년 만에 1.5%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의 하락과 수입수요의 감소 등으로 올해 경상수지는 127.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 1/4분기 경상수지는 수입감소가 수출감소를 압도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기조 지속 및 서비스수지 적자의 큰 폭 개선이 이루어져 75.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추세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3/4분기 이후 경기 저점 통과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지만 연간으로는 127.6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국제유가 하락 및 국내수입수요 위축으로 상품수지는 246억2천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서비스수지 적자도 사업서비스 및 해외여행 수요 감소 등으로 2008년 124억 달러에서 118.6억 달러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 (3) 물가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 그리고 국내 수요 위축 등으로 2009년 소비자 물가는 연간 2.4%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가 2009년에도 급속히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국내외 수요 위축으로 인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지속될 전망
  - 200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이고 여기에는 2008년 상반기까지 지속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상당 부분 기여를 하였음.
  - 지난 십여 년간 우리나라 물가상승에 있어 가장 큰 기여를 한 품목은 원유를 포함한 수입원자재이므로 이들 가격 하락은 물가 하락으로 직결될 전망
- 우리나라 물가상승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원/달러 환율인데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도 배제할 수 없으나 전반적으로 환율이 1,300원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할 때 수입물가의 급등 가능성은 낮은 편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는 연간 2.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4) 시장금리

- 2009년 시장금리는 2008년보다 소폭 하락한 6.5%를 기록할 전망
- 정책금리 및 국제금리의 하향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회사채 3년물, AA-)는 2008년 7.1%보다 소폭 하락한 6.5%를 기록할 전망
  - 세계적으로 정책금리의 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양적팽창에 의한 유동성도 풍부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시장금리는 작년보다 하락
-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재정팽창 충당을 위한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구축효과 등 큰 폭의 금리하락을 막는 요인들이 있어 소폭 하락에 그칠 전망
  -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우량기업이라도 신용리스크가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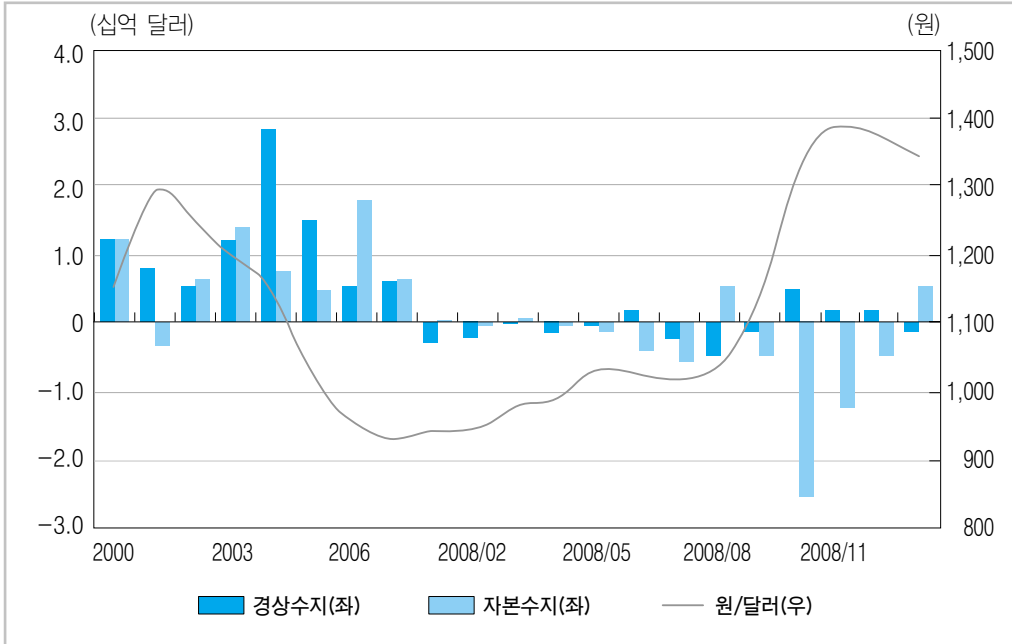
- 28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편성이 발표(3월 23일)됨에 따라 2009년 연간 추가로 발행될 국채 규모는 16조9천억 원
- 한은의 정책금리도 현재의 2%에서 더 이상 인하할 여지가 적은 상황

## (5) 환율

■ 2009년 원/달러 환율은 상고하저의 모습으로 보이며 연평균 1,300원대를 기록할 전망

- 올해 원/달러 환율의 최대 변수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해소와 세계경기 회복세 여부가 될 것
  -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노력 등이 효과를 보이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유동성 여건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국제금융시장의 부실자산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장의 불안심리가 가시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올해 상반기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나, 하반기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점차 안정을 찾아갈 전망
  - 하반기에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와 달러화 과잉공급에 따른 가치 하락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
  - 원/달러 환율은 올해 상반기에 1,380원, 하반기에 1,220원대로 하향 안정되면서 연평균 1,3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

<그림 II -2> 경상·자본수지와 원/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II -4〉 2009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4	2/4	3/4	4/4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5.1	4.9	-0.3	2.2	-5.3	-5.6	-5.4	1.5	-5.3	-2.1	-3.7
(SA, 전기비%)					-0.2	0.4	0.3	0.9			
민간소비	5.1	3.1	-1.2	0.9	-5.0	-5.7	-5.2	0.2	-5.3	-2.5	-3.9
고정투자	1.4	-1.0	-3.0	-2.1	-3.3	-1.6	-1.1	0.9	-2.3	0.0	-1.1
건설투자	9.3	1.3	-5.2	-2.0	-18.8	-16.4	-13.6	5.9	-17.6	-4.4	-11.2
설비+무형자산	12.6	11.3	0.7	5.7	-14.2	-14.3	-11.2	1.4	-14.3	-5.0	-9.7
수출(재화+서비스)	11.7	9.3	-1.6	3.7	-20.9	-18.7	-13.8	5.2	-19.8	-4.7	-12.4
소비자물가	2.5	4.2	5.0	4.7	3.8	2.2	1.5	2.3	3.0	1.9	2.4
생산자물가	1.4	7.0	10.0	8.6	4.5	0.1	-2.4	1.4	2.3	-0.5	0.9
경상수지	59.5	-53.5	-10.6	-64.1	75.1	30.4	4.2	17.9	105.5	22.1	127.6
상품수지	294.1	45.0	14.9	59.9	85.0	68.2	49.0	44.0	153.2	93.0	246.2
수출(BOP 기준)	3,789.8	2,211.6	2,122.6	4,334.3	806.0	912.8	941.0	965.0	1,718.8	1,906.0	3,624.8
증가율%	14.2	23.3	6.3	14.4	-21.7	-22.8	-19.7	1.5	-22.3	-10.2	-16.4
수입(BOP 기준)	3,495.7	2,166.6	2,107.7	4,274.3	721.0	844.6	892.0	921.0	1,565.6	1,813.0	3,378.6
증가율%	15.5	30.2	15.0	22.3	-30.7	-25.0	-26.1	2.2	-27.7	-14.0	-21.0
서비스 및 기타수지	-234.6	-98.5	-25.5	-124.0	-9.9	-37.8	-44.8	-26.1	-47.7	-70.9	-118.6
환율(원/달러, 평균)	929.2	987.5	1215.2	1101.3	1,420.0	1,340.0	1,240.0	1,200.0	1,380.0	1,220.0	1,300.0
회사채 금리(3년, AA-)	5.7	6.4	7.8	7.1	6.8	6.2	6.4	6.5	6.5	6.5	6.5
실업률(%)	3.2	3.3	3.1	3.2	3.7	3.6	3.5	3.5	3.7	3.5	3.6

## (6) 2009년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 추정

■ 2009년 3월 23일,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 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성장률은 약 1.1%p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번 추경 규모는 28조9천억 원이며 이 중 11조2천억 원은 세수부족을 메우는 데 쓰이고, 17조7천억 원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포함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 지원

〈표 II -5〉 2009년 추경 주요 내용

구 분	2009년 추경(안)
지출확대규모	17조7천억 원
GDP대비 비중(%)	1.9%
주요 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4조2천억 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조5천억 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4조5천억 원 지역경제활성화 3조 원 미래대비투자 2조5천억 원

자료: 기획재정부

- 실제 지출 확대되는 17조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sup>6)</sup>는 다음과 같음.  
 • 성장률은 약 1.1%p 제고되고 소비자물가는 0.2%p 상승하며 경상수지 흑자는 약 27억 달러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됨.

〈표 II -6〉 세출증가 17조7천억 원의 거시경제 효과

구 분	기본전망(A)	예상효과(B)	A+B
성장률	-3.7%	+1.1%p	-2.6%
경상수지	128억 달러 흑자	-27억 달러	101억 달러 흑자
소비자물가	2.4%	+0.2%p	2.6%

6) 정부는 세출증액 17조7천억 원의 효과를 성장률 약 1.5%p 내외로 전망

# 이슈분석

## G-20 정상회담의 평가와 우리의 과제

1. G-20 정상회담의 배경
2. London G-20 정상회담의 목표 및 주요 의제
3. 런던 G-20 정상회담까지의 과정
4. G-20 정상회담의 성과 및 주요 내용
5. G-20 정상회담의 평가 및 우리의 과제

## 1. G-20 정상회담의 배경

### ■ G-20 체제의 형성

- 1999년 9월 G-7 그룹은 국제적 경제 및 금융정책에 대한 협의의 대상을 세계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에까지 확대할 것을 천명하면서 G-20 체제가 형성됨.
  - G-20: G-7(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터키, 중국,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남아공, EU의장국(체코)
  - G-20 국가들은 전 세계 GDP의 85% 및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
  - G-20 체제가 형성된 데에는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가들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일부 선진국들만으로는 국제적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에 봉착한 것에 기인
- G-20 회담은 회원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간의 회의로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8년 11월 14일 워싱턴 회담에서부터는 정상회담으로 격상
-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는 국제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위기 재발을 막고 금융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데 합의를 하였으며 이를 위한 '액션플랜(Washington Action Plan)' 을 발표
  - 합의된 기본 내용은 (1)국제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2)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3)IMF와 World Bank 등의 국제금융기구를 개혁하는 내용
  - 각 회원국 재무장관들에게는 '액션플랜'에 대한 후속작업을 2009년 4월 런던 G-20 정상회담까지 수행할 임무를 부여

〈표 III-1〉 워싱턴 액션 플랜(Washington Action Plan)의 주요 내용

- 2008년 11월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5대 기본원칙과 이와 관련된 47개의 중·단기 실행계획(action plan)에 합의
- 금융시장 개혁의 5대 원칙과 주요 액션 플랜
  - (1)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Strengthen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공시 및 회계 기준의 개선
    - 고품질의 단일 국제 회계기준 및 모범규약(best practice) 제정
  - (2) 건전성 규제의 향상(Enhancing Sound Regulation)
    - 규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
    -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 CDS 및 장외 파생상품의 시스템위험 감소 노력
    - 은행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한 기준 개선
  - (3) 금융시장의 무결성 제고(Promoting Integrity in Financial Markets)
    - 금융시장 안정에 위협이 되는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공유
    - 돈 세탁, 테러 지원 등 불법적 행위로부터의 국제금융시장 보호
  - (4) 국제협력의 강화(Reinfor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 주요 국제금융기관 감독을 위한 감독협의체 구성
    -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 증진
  - (5) 국제금융기구의 개혁(Reforming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 FSF(The Financial Stability Forum) \* 의 확대 개편
    -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기관 - IMF 및 World Bank - 개혁

주: \* 는 1999년 국제금융안정 제고를 위해 창설된 국제 협의체이며 주요국의 재무장관, 금융감독기구 및 중앙은행장, 그리고 국제금융기구 등이 참여하고 있음. 포럼 참여국들은 G-7 국가들(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과 호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12개국이며 국제기구로는 IMF, World Bank, BIS, 그리고 그 외 기타 국제 규제 및 회계 관련 기구 등이 참여하고 있음.

■ G-20 정상회담 의장국

-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의장국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G-20 의장국단으로 활동하게 됨.
  - 의장국단은 전년과 당해연도 및 차년도 의장국 3국(‘Troika’)으로 구성되며 2009년 의장국단은 우리나라, 영국(2009년 의장국), 브라질(2008년 의장국)임.
  - 의장국단은 회원국과의 상의를 통해 의제 선정, 연사 선정, 그리고 회담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준비할 의무를 지님.

## 2. London G-20 정상회담의 목표 및 주요 의제

■ 2009년 4월 런던 G-20 정상회담의 목표

-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공식 명칭은 ‘The London Summit 2009’)은 2008년 11월 워싱턴 회담의 연장선상의 회담이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천명하고 있음.
  - 국제금융시스템 강화(규제 및 감독 기능 강화)에 대한 합의
  -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한 원칙, 우선순위 및 과정에 대한 합의
  -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 성장과 일자리의 회복
-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그리고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관한 논의는 ‘워싱턴 액션 플랜(Washington Action Plan)’에 대한 후속조치(follow-up)라고 할 수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논의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주의(Protectionism)’ 극복이 주요 의제이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공조방안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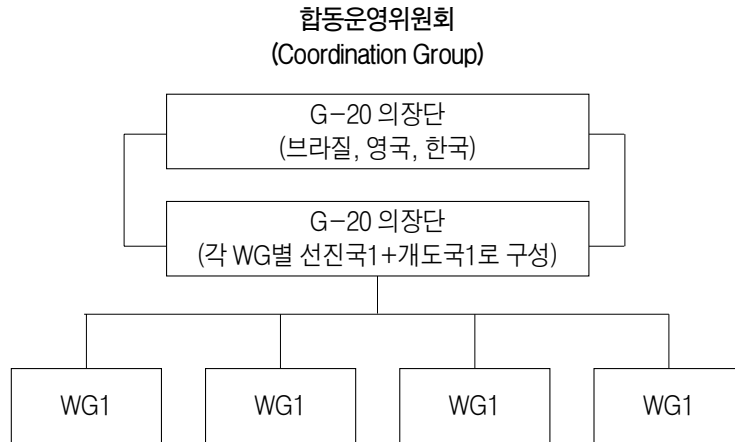
■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국제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액션플랜을 중심으로 금융개혁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진행되었음.
  - 액션플랜의 실천과제를 점검·조율할 4개의 Working Group(이하 WG)이 구성되었으며 각 그룹별로 두 나라(선진국 1, 개도국 1)의 의장단이 선정됨.
  - WG 의장단은 이슈별로 G-20 회원국과 IMF, World Bank 등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룹별 과제를 관리·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금감위,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이 각 WG에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WG의 작업뿐만 아니라 런던 G-20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하기 위하여 G-20 의장국단(브라질·영국·한국)과 WG 의장단으로 구성된 합동운영위원회가 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해왔음.

〈표 III-2〉 G-20 Working Group별 과제 및 의장단

Working Group	과 제	그룹별 의장단	우리나라의 참여기관
WG1	금융 건전성 규제 및 투명성 강화 (금융시장 감독, 규제체제 개선 및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캐나다, 인도	금감위
WG2	국제협력 강화 및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FSF, BIS 등 국제기구 회원국 확대와 금융감독에 대한 국가 간 협력 강화)	독일, 멕시코	한국은행
WG3	IMF 개혁 (IMF의 지배구조/기능 개선 및 재원확충 검토)	호주, 남아공	기획재정부
WG4	World Bank와 기타 국제개발은행(MDBs) 개혁 (국제개발기구의 지배구조/기능 개선 및 재원확충 검토)	프랑스, 인도네시아	기획재정부

<그림 III -1> G-20 Working Group 합동운영위원회 체제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과 보호주의 확산 억제

-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각국은 ‘보호주의’ 적 성격의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세계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
  - 미국 경기부양법안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 및 유럽의 자동차 및 항공 등의 국내 산업 지원 조치 등
- 무역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수요자를 해외 수요자보다 우선시하는 금융보호주의(financial protectionism)의 등장으로 글로벌 신용경색이 더욱 심화되는 문제도 논의의 대상
  - 금융위기로 금융기관은 우선적으로 해외자산의 매각 및 해외대출의 회수 등을 단행
  -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bank bail-out)을 단행한 EU 국가들은 은행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내 대출을 늘릴 것을 주문하는 사례 발생
  - 이와 같이 자국 내에서의 대출 확대를 공식적인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명시적 조건보다는 정치적 압력으로 나타나는 경향

<표 III -3> 최근 주요국들의 보호무역 동향

국가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12월 19일 GM, 크라이슬러에 구제금융 결정</li> <li>- 174억 달러 지원, 구조조정 조건으로 2009년 3월까지 한시적 추진</li> <li>• 미국 경기부양법안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 포함</li> <li>- 미 하원, 1월 28일 8,1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승인</li> <li>- 미 상원, 2월 9일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심의 통과하면서 “Buy American” 조항은 국제협정에 규정된 미국의 의무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li> </ul>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의 주요국은 자동차 및 항공 등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함.</li> <li>-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경기부양책 또는 자동차산업에 특화된 구제 금융을 통해 지원(프랑스는 고용·국내공장 유지 및 자국산 부품 사용 조건*, 이탈리아 국내 공장 유지 조건)</li> <li>- 프랑스와 독일은 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에어버스 구매자에 대한 대출보증 발표</li> <li>• 낙농업(우유, 버터)에 대한 수출보조금 재개</li> </ul>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관세 인상</li> <li>- 2009년 1월 12일부터 향후 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li> <li>•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 향후 제화류에 대한 수입관세도 인상할 계획</li> </ul>	
중남미	아르헨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제 적용 확대</li> <li>- 건별 수입규제를 통한 국가 간 통상마찰을 피하고 규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용대상 품목 및 국가를 확대하는 등 포괄적인 수입제한 조치 시행</li> </ul>
	에콰도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품에 대한 품질적합성 인증서 요구</li> <li>- 주요 대상 품목은 타이어, 의류, 철근, 냉장고, 자동차 등 24개 품목</li> </ul>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수입허가 의무화 조치 이틀 만에 전면 취소</li> <li>- 지난 1월 26일 수입품의 60~70%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수입 허가 의무화 조치 발표</li> <li>- 수입과정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우수한 공급업체 상실 등을 우려한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시행 이틀 만에 조치 전면 철회</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두 달간, 자국의 산업 및 국민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수입관세인상 및 비관세 장벽설치 등의 보호무역조치 실시</li> <li>- 향후 세계 무역보호주의 조치 강화에 따라 반덤핑 규제대상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li> <li>-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15%까지 인상할 계획</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1월부터 비관세장벽을 이용한 수입규제 강화</li> <li>-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li> <li>-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인증 강제 및 적용대상 확대</li> <li>- 식음료 품목에 대한 표시규정 강화 발표</li> </ul>	

주: \* 프랑스는 EU 유럽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자국 자동차업체 푸조와 르노에 대한 금융지원 조건으로 국내 공장 유지 및 국내산 부품 사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음.

자료: 송원근(2009)

<표 III-4> 최근 발생한 금융보호주의 사례

국가	내용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은 자국의 글로벌 은행들에 대해 해외대출을 회수하여 국내대출을 늘리라는 압력을 넣고 있음.</li> <li>• 최근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이 60개 국가의 해외 지점을 폐쇄한다는 발표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로 보임.</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은행들의 경우도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국내대출을 늘리기로 약속</li> </ul>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덜란드 은행인 ING의 경우 1월에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자국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대출은 250억 유로 늘리기로 약속</li> </ul>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인 Provopoulos는 그리스 은행들이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받은 280억 유로를 해외로 유출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경고</li> </ul>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 은행들의 국내 대출에 대한 회계기준을 해외대출에 비해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유럽 은행들의 헝가리, 체코, 발틱 연안 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신용회수와 그에 따른 동유럽 위기 심화</li> </ul>

-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단기적 노력과 함께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을 위한 방안도 논의 대상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방안
  -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 방안
  - 기술, 혁신, SOC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방안

### 3. 런던 G-20 정상회담까지의 과정

#### (1) 경제권역별 동향

- 런던 G-20 회담에 앞서 경제권역별로 사전 모임을 통해 권역별 이해 및 의견 조율을 시도
  - 주요 사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 타진 및 정책 공조를 위한 합종연합 시도

#### ■미국

- 미국은 4월 런던 G-20 정상회담을 확대된 국제공조 체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
  - 국제화된 현 상황에서 미국의 장단기 국익추구를 위해서 타국의 협조와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
  - 단기적으로는 국제경제 질서 재편과정에서 국익추구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표방한 다자주의를 통해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기대
- 미국은 런던 G-20 회담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공조체제 논의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금융규제 개혁도 영국과의 협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어젠다를 제시한다는 입장
  - 이번 G-20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국제공조에 의한 경기부양책강구에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
  - 그 일환으로 개혁을 통한 세계은행의 역할제고를 강조하고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지지를 천명
  -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전 새로운 금융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영국과 합의(2009년 3월 4일, 브라운 영국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 회담)

#### ■유럽

- 유럽의 경우 G-20 정상회담 관련 사전 모임을 가장 활발하게 개최하였으며 2월 22

일 베를린, 3월 1일 브뤼셀에서 각각 주요국 정상회담을 가졌음(〈표 Ⅲ-5〉 참조).

- 베를린 회담은 런던 G-20 회담에서 취할 유럽국들의 공동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국제금융시장 감독 및 신용평가기관 감독 강화, 금융기관 경영진의 보너스 체계 개선, IMF 개혁 등을 합의
  - 브뤼셀 회담은 비공식(informal) 특별정상회담의 성격을 띤 회담으로 EU의 동유럽 회원국들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와 금융안정 및 보호주의를 논의하는 자리였음.
  - 브뤼셀 회담에서는 보호주의 지양 및 단일시장 원칙 고수 등에 관한 합의는 있었으나 동유럽에 대한 지원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동유럽과 서유럽 간의 갈등 고조).
- 2008년 12월 EU와 브라질 정상회의(EU의장국 자격으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참석)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IMF 개혁 등의 이슈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노력 강화에 합의
- 프랑스는 국제금융기구에서의 개도국 참여 확대를 원하는 브라질의 입장을 지지하기로 하는 한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브라질의 협조를 요청

<표 III -5> EU 주요국들의 최근 정상회담 내용

베를린 회담	브뤼셀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금융시장 규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금융시장, 상품,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예외 없이, 또 국적과 관계없이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받아야 함.</li> <li>• 신용평가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감독 강화</li> <li>• 금융기관 경영진들이 지나친 위험 추구에 일조하는 보너스 체계를 개선하는 지침 마련</li> <li>• 다국적 금융기관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새로운 감독협의체 구성 필요</li> <li>• IMF와 FSF에 효율적인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IMF의 자금지원 정책을 개혁</li> </ul> </li> <li>- 국제협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F의 기금을 현재의 두 배로 증액</li> <li>•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도하 협정(the Doha Round)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노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뢰구축과 금융안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합의된 원칙에 근거하여 금융여건의 향상, 특히 경기부양책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용경로(credit channel)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li> <li>• 적극적인 부실은행자산 정리와 금융기관의 규제 및 감독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일괄적이며 동등한(universal and equal) 국제금융규제의 개혁이 필요</li> <li>• 안정 및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입각한 공공재정의 장기적 건전성 확보</li> <li>• EU지역의 거시금융 안정을 위해 중동부 유럽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하며 정책도구로서의 유럽투자은행의 역할을 강조</li> </ul> </li> <li>- 실물경제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무역주의의 지양과 함께 시장공동체로서의 EU 역할 증대</li> <li>• 각국 자동차산업 관련 지원대책의 조율 및 공조</li> <li>•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적 공조 필요</li> </ul> </li> <li>- 국제 공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역내에서의 금융안정 및 시장개방 노력에 상응한 국제사회의 정책대응 요구</li> <li>• G20 정상회담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성 회복 도모</li> <li>• 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공감대 확대</li> </ul> </li> </ul>

■ 아세안

- 아세안(ASEAN) 의장국인 태국은 아세안 대표로 런던 G-20 회담에 초청되었으며 2009년 아세안(ASEAN) 정상회담(3월 1일)을 통해 아세안의 공동 입장을 표명
  - 내수진작을 위한 경기부양책 도입을 환영하며, 이를 위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유무역 및 DDA 협상 타결을 지지
  - 국제금융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규제를 강화하고 개도국들의 위상을 반영한 공정하고 포괄적인 체제 구축 필요성 제기
  - 2월 22일 ASEAN+3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지지하고 금융시장을 포함한 역내 경제 간 공조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

■ 남미제국

- 3월 2일 19개국 남미제국들이 포르투갈과 스페인과의 공동회담을 가지고 선진국에 의한 급격한 자본유출과 국제금융기구들의 차별적 지원에 대한 비판을 제기
  - 금융위기로 인한 남미지역으로의 자본흐름 차단에 대한 우려 표명<sup>3)</sup>
  - 개도국들의 경제활력 유지와 위기극복에 필요한 신용 및 자본 접근성 제고가 필요: 그 일환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장관 페르난데즈는 IMF의 대출조건 완화 및 세계은행의 지원조건 완화를 요구
  - 또한 위기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자본 확충 필요성을 천명<sup>4)</sup>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2008년 12월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IMF 개혁,

3) 이와 관련하여 멕시코 재무장관 Carstens는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며 개발도상국들의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자본흐름을 차단하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함.

4)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중남미지역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촉진하고 개발금융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1959년 4월 미국을 포함한 중남미 20개국을 가입국으로 하여 발족되었음. 이 은행은 IBRD, 미국수출입은행 등 기존의 대출기관에 대하여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회원국은 2008년 현재 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베네수엘라·미국·캐나다 등을 포함한 48개국이며, 사무국은 미국 워싱턴에 있음.



보호주의 반대, 금융규제 강화 등에 관한 제안서(proposals)를 런던 G-20 회담에 제출하기로 합의

- G-20 정상회담에서 남미제국의 가장 큰 화두는 보호무역주의 타파
  - 메이켈레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항에 강한 불만을 표시
  - 이와 더불어 IMF의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규제 강화를 요구

#### ■ 선진국 vs. 중국

- 현재의 위기가 글로벌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최대흑자국인 중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음.
  -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세계경제 혼란의 주범으로 미국의 재정적자와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목한 바 있음.
  - 흑자국들의 재정지출 확대요구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음.
- 하지만 위기극복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에 대한 직접적 비판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있는 추세
  -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G-7 회동 시 중국 위안화 절상을 통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 목소리도 이전에 비해 작아짐.
- 중국 정부는 런던 G-20 회의 준비 보고서를 통해 IMF 및 세계은행에서 개도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호주의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

## (2) G-20 정상회담 관련 사전 회담

- 런던 G-20 정상회담에 앞서 준비적 성격의 여러 회담이 열렸으며 G-20 회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여건의 조성 - FSF 회원 확대, IMF 재원 확충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부분적 성과를 도출
  - 2009년 3월 14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담을 통해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

- 2009년 3월 18일 G-20 회원국 경제단체 대표들과 영국 브라운 총리는 비즈니스 회담(business summit)을 열고 ‘보호주의 반대’의 통일된 의견 표명

■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담

- 런던 G-20 정상회담 준비 모임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4일 영국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담이 열렸으며 여기서 세계경제 성장 회복, 자금공급 증가를 위한 조치와 국제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개혁에 합의
  - 성장의 회복과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8개항에 합의(〈표 Ⅲ-6〉 참조)
- 하지만 미국 등이 주장한 ‘GDP의 2% 규모 이상의 재정지출’ 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에 합의하는 데는 유럽 등의 반대로 실패
  - 우리나라도 각국이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을 가지고 나와 동시에 재정책대정책을 추진하는 ‘글로벌 딜(Global Deal)’ 을 제안한 바 있음.

■ Financial Stability Forum(FSF)의 확대

- 3월 11일~12일 FSF는 회의를 열고 현재 회원국이 아닌 11개 G-20 국가들-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터키-에까지 회원 자격을 확대하기로 결정
  - 그 외에도 스페인과 EC(European Commission)도 회원으로 가입 결정

■ IMF의 유동성 확충

- 신흥·개도국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IMF의 재원 확충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 일본은 이미 1억 달러를 IMF에 빌려 주기로 합의하였음.
  - 한편 중국도 고위당국자가 “IMF가 채권을 발행한다면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를 사들이는 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음.

<표 III-6>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담의 합의 내용

주요 합의 내용

1. 각국은 국제적인 공조하에 성장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유지할 것임.
2. 각국은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과 은행 자본 확충, 부실자산 처리를 통해 금융시장의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자금공급을 회복시킬 것임.
3. 각국은 현재까지 발표된 예외적인 정책적 조치들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성장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고, IMF에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들과 앞으로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평가를 요청함.
4. G20 중앙은행들은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비밀상적인 수단을 포함한 모든 통화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확장적 정책기조를 경제회복 시까지 유지할 것임.
5. G20 국가들은 국제적 자본흐름의 역전 현상에 대처함으로써, 신흥국을 지원할 것임.
  - 경기대응적 지출, 은행자본확충, 사회기반시설, 무역금융, 사회보장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들의 자원과 유동성을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추구할 것임.
  - 양자차입, NAB(신규차입 협정)의 확대, 쿼터 재검토 등을 통해 IMF의 자원이 신속히 증가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
  - 다국적 개발은행 역시 ADB를 시작으로 필요한 자원을 확충하고,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데 합의
6.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즉시이행과제들을 완료하는 한편 남은 중기과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런던 정상회의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임.
  - 모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 시장, 상품은 적절한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헤지펀드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등록의무를 지고, 그들이 유발하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공시
  - 거시건전성 감독을 통한 규제 강화로 시스템리스크의 누적을 방지
  - 금융규제는 경기 순환 진폭을 감소시켜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그러나 자본요구량은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변동 없이 현 수준을 유지
  - 공동감시단 설립, FSF의 강화, IMF와 FSF의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위기를 방지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
7. 신용평가사에 대한 등록의무를 포함한 규제감독의 적용과 IOSCO 코드 준수, 부외거래로 나타나는 특수목적 기구의 투자내역의 완전한 공개, 총당금과 가치평가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회계기준의 개선, 신흥파생상품 시장의 보다 범위한 표준화, FSF의 건전한 보상체계에 대한 원칙, 관련 국제기구들이 비협조적인 관할지역에 대한 규제방안 등에 합의함.
8. 국제기구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제기구의 지배구조는 세계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신흥·개도국들은 2011년까지 완료되는 쿼타 개혁에서 보다 많은 발언권과 대표성을 가져야 함. 또한 국제기구 수장의 임명은 개방적이고 능력위주의 선발되어야 함.

## 4. G-20 정상회담의 성과 및 주요 내용

### ■ 기본 합의사항

- 2009년 4월 1일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다음의 6개 부문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였음.
  - 경제의 자신감(confidence), 성장 및 고용의 회복
  - 대출기능의 회복을 위한 금융시스템을 개선
  - 신뢰(trust)의 재구축을 위한 금융규제 강화
  - 위기의 극복 및 재발을 막기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및 자원 보강
  - 국제무역 및 투자 증진과 보호주의 배격
  - 포괄적이며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의 구축

### ■ 성장 및 고용 회복을 위한 내용

- 세계경제 성장 등을 위해 1.1조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에 합의
  - IMF의 재원을 7,500억 달러로 확충(현재의 2,500억 달러에서 추가로 5,000억 달러 확충)
  - SDR의 추가 배분 2,500억 달러
  - 다자개발은행의 대출규모를 1,000억 달러 추가 확대
  - 무역금융을 2,500억 달러로 확대
  - 최빈국에 대한 양허성 대출을 위해 IMF 보유의 금 판매 재원을 활용
- 2010년 말까지 총 5조 달러 지출 및 4% 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녹색경제로의 이전을 가속화
  -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기관의 건전성 확보 및 정상적인 신용흐름의 회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대출의 회복과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해 G20 framework에 부합되도록 정책 집행
  - 중앙은행은 가격 안정을 유지하면서 비전통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확장적 통화정책을 필요한 기간만큼 유지
  - IMF에 각국이 취한 조치와 필요한 조치에 대한 평가를 요청

- 경제정책 이행 시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통화절하 경쟁을 배격

■ 금융감독 및 규제의 강화

- 각국은 지난 워싱턴 회의에서 합의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이행하고 있으며, 금일 별도의 '금융체제강화' 선언(declaration)을 발표
  - FSF는 모든 G20 국가, 스페인, EC를 포함하고 더 강화된 임무를 부여하여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
  - FSB는 IMF와 협력하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조기경보 제공 및 대응조치를 보고
  - 규제당국이 거시건전성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제체제 개혁
  - 금융규제 및 감독의 범위를 헤지펀드 등을 포함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 금융기관의 지속가능한 보상체계 구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FSF의 강화된 새 원칙 이행
  - 경제회복 이후 은행 자본의 양적, 질적 제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호경기에 완충자본을 확충하고,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도록 규제
  - 조세피난처 등 비협조적 지역을 파악하여 규제
  - 단일한 회계기준 확립, 가치평가 등에 관한 일관성 확립 노력
  - 신용평가사 등록과 규제확대 및 국제행동규범 준수 확보

■ 국제금융기구의 강화

-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신흥국과 개도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IMF, World Bank 등의 역할 강화를 위해 8,500억 달러의 추가적 재원 확보
  - IMF 재원 5,000억 달러 추가 확보 및 SDR의 추가 배분 2만5,000억 달러, 그리고 MDBs(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의 추가 대출 1,000억 달러
- 세계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제금융기구의 임무 및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신흥국과 개도국의 영향력과 참여를 확대
  - 2008년 4월 합의된 IMF 쿼타 개혁안을 이행하고, IMF는 차기 쿼타 검토를

2011년 1월까지 종료

- 2008년 10월 합의된 세계은행 개혁안을 이행하고, 2010년까지 개혁안에 대해 추가 합의 기대
- 국제금융기구들의 대표 및 고위직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능력에 기반(merit-based)하여 선출

#### ■ 보호주의 저지 및 세계무역 · 투자의 증진

-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는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과거 보호주의와 보복의 역사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
  - 워싱턴 정상회의에서의 합의를 재확인: 무역, 투자 등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 수출규제조치,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촉진 조치를 배격하고 또한 그러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이며, 동 합의를 2010년까지 연장
  - 금융시장 지원 및 재정정책을 포함한 국내정책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금융보호주의를 배격
  - 각국은 그러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WTO에 통보하고, WTO는 주어진 임무범위 하에서 여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
  -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 수출신용기관, 투자기구, MDBs 등을 통해 향후 2년간 무역금융을 2,500억 달러로 확대하고 무역금융에 대한 자본요구량의 신속적 적용 필요
  - DDA 협상의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이를 위해 세부원칙(modalities)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진행성과에 기초하여 DDA 협상 타결에 노력

####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회복

- 세계경제 회복과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의 기반구축이 필요하고 현 위기로 인해 최빈국들의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의 완화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
  -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 공약 및 무역을 위한 지원(Aid for Trade), 서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지원에 대한 글렌이글스 공약 등을 포함하여 기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공약 이행 약속 재확인
  - 저소득국가들의 사회보장, 무역증진 등을 위해 500억 달러 제공

- 최빈국 사회보장, 장기적 식량안보투자 등을 위해 세계은행의 취약국가 지원체제 (Vulnerability Framework)에 대한 지원 강화
  - 향후 2, 3년간 최빈국에 대한 양허성 금융지원 등 IMF 금 판매 자금 60억 달러 제공
  - IMF와 세계은행의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재검토 요청
  - 금번 위기가 최빈국과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효과적 체제 구축을 UN에 요청
- 재정투자를 녹색성장(green recovery)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저탄소 사업 기회 확대에 노력하고 다자개발은행들이 이러한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을 촉구
- 기후변화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차별화된 책임과 공통의 원칙에 기반하여 12월 코펜하겐 UN 기후변화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노력

■ 합의의 이행

- 합의사항 이행 검토를 위해 금년 말 이전에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함.

## 5. G-20 정상회담의 평가 및 우리의 과제

### (1) 평가

■ 전반적 평가

- 정상회담 이전 각종 사전 회담 등을 통해 상당 부분에 대해 의견조율이 이루어졌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특히 경제회복을 위한 총지출 규모와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무역금융 및 개도국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규모 등이 제시된 것이 큰 성과
  -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한 일정에 합의한 것도 성과 중의 하나

- 하지만 정책방향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행계획 및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이어서 불확실성을 내포
  - 추후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나 사안에 따라 각국의 경제사정 및 이해가 달라 합의된 금융 지원규모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음.
  - IMF의 의결권 배분 등과 같은 제로섬 성격의 쟁점의 경우 상당기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보호주의 반대

- 보호주의 반대에 대해서는 선언적 합의를 이루었으나 보호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은 의문시됨.
  - 한편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높일 수 있는 우회 수단이 다수 존재하므로 WTO의 보호무역 확산 제어 역할은 한계가 있음.
- 실제로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양허관세율에 비해 현격히 낮은 실행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다수 있음.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는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의 차이가 거의 없어 WTO 규정 내에서 관세인상의 가능성이 낮음.
  - 중국을 제외한 BRICs 국가들과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 ASEAN 국가들 등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양허관세율에 비해 현격히 낮은 실행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양허관세율 범위 내에서 대폭적인 관세인상이 가능함.
  - WTO 규정 내에서 경쟁적인 관세인상에 의한 보호무역 확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산업지원 형태의 보호무역도 WTO 규정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광범위하게 존재함.
  - 미국의 GM, 크라이슬러에 대한 구제금융, 유럽 국가들의 자국 자동차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은 WTO의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원칙에는 명백히 위배되나 경기침체의 심각성과 지원의 비반복성을 증명하면 WTO 보조금협정에서 허용하는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



- 자동차산업 외에 경기침체의 영향이 큰 철강산업, 화학산업 등에 대한 보호는 반덤핑관세의 부과 등 비관세장벽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역상대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구제(trade remedies)에 대해서는 WTO 규정상 허용범위가 넓어 비관세장벽을 이용한 보호무역이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경기부양법안에 'Buy American' 조항을 포함하면서 미국의 국제협정상 의무와 배치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한 것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가 12개국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WTO 체제를 이용한 명백한 보호무역 행위라고 볼 수 있음.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철강수출국들이 이 협정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 조항으로 인한 무역분쟁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보호주의의 경우 무역과는 달리 국제적 규칙(rule)도 없기 때문에 금융보호주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은 없는 상태
    - 내국인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국내 대출을 우선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 압력은 받게 되므로 명시적으로 금융보호주의적 정책이 없어도 실제로는 보호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
    - 결국 금융보호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적 합의는 선언적인 의미는 가질 수 있어도 그 합의 자체가 실효성을 가지기는 어려움.
  - 따라서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WTO의 역할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국제적 협약 범위 내에서 보호주의가 강화될 경우 WTO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실효성은 제한적
    - World Bank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워싱턴 회담에서도 보호주의 반대를 내걸었지만 이후 20개국 가운데 17개국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음.
  -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 DDA 협상의 타결이지만 이번 G-20 정상회담 합의에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재
    - 이번 합의에서는 DDA 협상의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의 정치적 수사(rhetoric)만 있고 각국의 입장 및 협상일정 등 구체적 내용은 없어 DDA 협상의 조속 타결은 어려운 상태

#### ■재정확대

- 재정확대에 있어 세계 공동의 노력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미국, 우리나라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국의 재정확대 정책에 있어 공동의 목표(예를 들어 GDP의 2% 이상)를 설정하는 방안은 이미 사전 회담(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
  - 일부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향후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여 반대
  - 경기부양 실패 시 돌아올 정치적 책임 등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
  - 현 위기의 원인의 하나가 global imbalance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역할과 부담증가(재정지출을 보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
- 따라서 G20 정상들은 내년까지 5조 달러를 경기 부양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각국이 얼마의 금액을 투입할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양책까지 포함됐는지는 등 불분명한 점이 많음.
  - 각국의 세부적 투입 금액 없이 총액 '5조 달러' 만 내건 부양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
- 한편 재정지출의 확대가 자국 국내산업의 구제 및 보호를 위해 사용되고 이로 인해 보호주의가 경쟁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음.
  - 이런 현상이 현실화되는 경우 각국이 동시에 재정지출을 확대하여도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있음.

#### ■금융지원 및 국제금융기구 개편

- IMF의 재원확충 및 구제금융 역할 강화 등에도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나라별로 얼마를 언제까지 출연할지는 아직 미확정
-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혁 및 그 일정에도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
  -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혁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왔으나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2) 우리의 과제

### ■ G-20 정상회담의 제도화

- 현재 글로벌 이슈에 관한 국제회의체제(G-13, G-16 등) 중 우리나라가 포함될 수 있는 체제는 G-20 체제가 유일하므로 G-20 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임.
  - 향후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G-20 정상회담을 지속화하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향후 G-20 정상회담에서도 의장단으로서의 선진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 조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G-20 정상회담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 국제금융기구 개편에 있어 우리의 영향력 확대

-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의 개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IMF와 관련하여 우리 경제력을 반영하여 쿼터의 상향 조정이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IMF 쿼터 비중은 1.35%로 전체 IMF 회원국 중 1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13위의 우리 경제규모(명목GDP 2007년 기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
- 하지만 현재 쿼터 구조상 우리나라의 쿼터를 경제규모에 맞게 상향 조정하면 경제 규모보다 많은 쿼터를 가진 국가들(가령 일부 유럽국가들)이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쿼터 상향 조정은 쉽지 않은 문제
  - 우리나라 쿼터 상향 조정을 추진할 경우 EU 등 타 국가와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고려
- 따라서 국제기구 개편에 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

### 제Ⅲ장 이슈분석: G-20 정상회담의 평가와 우리의 과제

되 각국 간 이해충돌로 합의가 쉽지 않을 시는 무리하게 목표 달성을 시도하기보다는 장기적 과제로 남겨 두는 선에서 절충할 필요

- 국제기구 개편을 둘러싼 이해충돌로 G-20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의장국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 Ⅲ-7〉 IMF 쿼터 순위

쿼터 순위	국가	쿼터 비중(%)	의결권 비중(%)	GDP 규모(순위)
1	United States	17.09	16.77	1
2	Japan	6.13	6.02	2
3	Germany	5.99	5.88	3
4	France	4.94	4.86	6
5	United Kingdom	4.94	4.86	5
6	China	3.72	3.66	4
7	Italy	3.25	3.19	7
8	Saudi Arabia	3.21	3.16	24
9	Canada	2.93	2.89	9
10	Russian Federation	2.74	2.69	11
11	Netherlands	2.38	2.34	16
12	Belgium	2.12	2.09	18
13	India	1.91	1.89	12
14	Switzerland	1.59	1.57	22
15	Mexico	1.45	1.43	14
16	Brazil	1.4	1.38	10
17	Spain	1.4	1.39	8
18	Korea	1.35	1.33	13
19	Venezuela	1.22	1.21	34
20	Sweden	1.1	1.09	19

자료: IMF 및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

■ 보호주의의 극복

- WTO 규정 내에서도 광범위한 보호무역 확산이 가능하므로 보호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FTA의 확대 필요
  - 다수의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보호주의 극복 및 무역 확대를 꾀하여야 함.

■ 유동성 확보

- 금융보호주의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는 해외보다 국내 대출을 우선시하는 금융보호주의 그 자체보다는 세계적인 신용경색으로 개도국에 대한 크레디트가 축소되는 문제임.
- 따라서 글로벌 신용경색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금융보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될 것임.
- 국제금융기구의 개도국 금융지원에 대한 합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 프로그램의 조속한 마련
  - 공동의장국의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노력
- 또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부실자산 정리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신뢰제고 노력도 필요
  - 부실자산을 신속히 정리하여 해외 차입 여건 제고

부록

##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구 분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비		투자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달러	전년동기 대비(%)				
2004년	4.6	10.0	15,082	0.3	3.8	2.1	3.8	1.3
2005년	4.0	6.2	17,531	4.6	4.3	1.9	5.3	-0.4
2006년	5.2	8.1	19,722	4.7	6.6	3.4	8.2	0.5
2007년	5.1	7.2	21,695	5.1	5.4	4.2	9.3	1.4
2008년	2.2	3.1	19,231	0.9	4.2	-1.7	-2.0	-2.1
2003년 3/4	1.5	3.0		-1.0	4.5	2.8	-5.8	8.3
4/4	2.6	4.8		-1.4	4.2	5.0	-2.2	9.0
2004년 1/4	1.0	2.2		-0.9	3.6	2.3	-0.6	5.3
2/4	0.7	2.4		0.5	4.7	4.9	6.4	4.2
3/4	0.4	0.7		0.3	3.9	3.1	7.7	1.2
4/4	0.5	0.4		1.5	3.2	-1.4	1.8	-3.5
2005년 1/4	0.9	1.5		2.5	3.7	-0.3	3.4	-3.1
2/4	1.5	1.2		4.7	4.7	1.8	2.8	0.9
3/4	1.6	3.5		5.7	6.3	1.5	4.1	-0.3
4/4	1.1	2.5		5.5	2.7	3.9	10.8	0.3
2006년 1/4	1.7	2.2		5.7	6.0	3.8	7.2	1.9
2/4	0.6	0.5		4.5	6.7	0.1	8.0	-4.2
3/4	1.6	3.3		4.3	6.0	4.0	12.0	-0.5
4/4	0.6	-0.9		4.5	7.5	5.7	5.7	5.1
2007년 1/4	1.5	2.0		4.9	5.9	7.3	12.6	4.4
2/4	1.5	2.7		5.2	6.3	5.7	13.0	2.0
3/4	1.3	2.5		5.4	4.8	1.5	4.0	-0.2
4/4	1.3	2.4		4.7	4.7	3.1	8.0	0.4
2008년 1/4	1.1	1.2		4.0	3.6	-0.5	1.5	-1.9
2/4	0.4	1.7		2.3	4.0	0.6	1.1	-0.3
3/4	0.2	0.1		1.4	4.5	1.8	4.3	0.2
4/4	-5.1	-11.9		-3.7	4.7	-7.3	-14.0	-5.6

무역 · 국제수지

구 분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보유액 <sup>1)</sup>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04년	2,538.4	31.0	2244.6	25.5	375.7	281.7	1,990.7	1,043.8
2005년	2844.2	12.0	2612.4	16.4	326.8	149.8	2,103.9	1,013.0
2006년	3254.6	14.4	3093.8	18.4	279.1	53.9	2,389.6	929.6
2007년	3714.9	14.1	3568.5	15.3	281.7	58.8	2,622.2	938.2
2008년	4220.1	13.6	4352.7	22.0	59.9	-64.1	2,012.2	1,257.5
2006년 10월	280.2	10.5	256.2	13.1	26.3	17.8	2,294.6	944.2
11월	306.0	18.5	267.7	12.2	55.5	42.7	2,342.6	929.9
12월	287.8	12.3	275.2	13.8	17.0	0.6	2,389.6	929.6
2007년 1월	280.9	20.8	276.0	19.4	12.9	-4.3	2,402.3	940.9
2월	262.3	10.3	254.1	8.1	23.9	4.0	2,428.1	938.3
3월	303.9	13.2	292.3	12.9	23.6	-16.4	2,439.2	940.3
4월	299.4	17.0	296.0	20.9	15.2	-20.8	2,472.6	929.4
5월	310.4	11.1	298.6	13.9	22.4	8.4	2,507.4	929.9
6월	320.0	14.5	285.1	9.5	32.1	12.7	2,507.0	926.8
7월	302.1	17.2	292.2	14.4	30.4	15.5	2,548.4	923.2
8월	310.0	13.6	296.4	9.7	29.1	5.7	2553.0	939.9
9월	293.2	-1.1	271.9	-1.6	37.3	23.0	2572.9	920.7
10월	344.3	22.9	327.4	27.8	36.4	24.6	2601.4	907.4
11월	358.1	17.0	339.3	26.8	26.4	15.1	2619.3	929.6
12월	330.3	14.8	339.0	23.2	4.4	-8.1	2622.2	938.2
2008년 1월	322.7	14.9	363.2	31.8	-11.0	-27.5	2618.7	3943.9
2월	311.8	18.9	326.2	28.4	-6.0	-23.5	2623.6	937.3
3월	359.9	18.5	371.1	26.7	4.8	-1.1	2642.5	991.7
4월	378.5	26.4	382.6	29.3	16.3	-15.8	2604.8	999.7
5월	393.9	26.9	387.0	29.6	6.1	-3.8	2582.0	1031.4
6월	372.6	16.6	378.3	32.7	34.8	18.2	2581.0	1043.4
7월	409.6	35.6	429.5	47.0	2.2	-25.3	2475.2	1008.5
8월	366.1	18.1	404.2	36.4	-28.0	-47.0	2432.0	1081.8
9월	374.3	27.6	395.3	45.4	-8.9	-13.5	2396.7	1187.7
10월	371.1	7.8	361.0	10.3	-26.3	47.5	2122.5	1291.4
11월	288.4	-19.5	288.5	-15.0	-8.4	19.1	2005.1	1482.7
12월	271.2	-17.9	265.8	-21.6	15.0	8.6	2012.2	1257.5
2009년 1월	213.7	-33.8	247.2	-31.9	-14.6	-13.6	2017.4	1368.5
2월	254.6	-18.3	225.3	-30.9			2015.4	1516.4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실업·이자율

구 분	물가 <sup>2)</sup>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sup>3)</sup>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 대비(%)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4년	6.1(5.3)	3.6(3.0)	3.7	9.5	4.6	6.1	4.71	832.9
2005년	2.1(1.5)	2.8(2.6)	3.7	8.1	6.9	7.0	4.68	1,073.6
2006년	0.9(0.3)	2.2(2.1)	3.5	5.7	8.3	7.9	5.17	1,352.2
2007년	1.4(3.6)	2.5(3.6)	3.2	8.4	11.2	10.2	5.70	1712.5
2008년	8.6(5.6)	4.7(4.1)	3.2	0.9	14.3	11.9	7.02	1529.5
2006년 10월	0.4(0.9)	2.2(2.3)	3.3(3.4)	13.2	10.1	8.7	4.93	1354.0
11월	0.2(0.4)	2.1(1.8)	3.2(3.4)	5.8	11.1	9.4	5.05	1403.9
12월	0.3(0.3)	2.1(2.1)	3.3(3.3)	6.9	11.4	9.6	5.18	1418.8
2007년 1월	0.0(0.0)	1.7(1.8)	3.6(3.3)	-13.6	11.3	9.8	5.32	1379.3
2월	0.1(0.1)	2.2(0.9)	3.7(3.2)	28.1	11.5	9.9	5.28	1434.9
3월	0.6(0.5)	2.2(1.5)	3.5(3.2)	6.3	11.5	10.2	5.20	1431.6
4월	1.1(1.2)	2.5(1.9)	3.4(3.3)	7.2	11.1	10.1	5.34	1517.1
5월	1.4(1.8)	2.3(1.9)	3.2(3.4)	5.9	10.9	10.1	5.49	1614.9
6월	1.7(2.0)	2.5(1.9)	3.2(3.3)	6.2	10.9	10.4	5.64	1754.3
7월	1.6(2.2)	2.5(2.3)	3.2(3.4)	9.6	10.9	10.0	5.75	1911.6
8월	0.9(2.1)	2.0(2.4)	3.1(3.2)	8.8	11.4	10.3	5.70	1815.0
9월	1.0(2.6)	2.3(3.0)	3.0(3.2)	12.3	11.0	10.3	5.85	1879.0
10월	2.2(2.8)	3.0(3.2)	3.0(3.1)	-0.6	10.8	10.4	5.98	2004.6
11월	3.1(3.2)	3.5(3.2)	3.0(3.2)	5.9	11.3	10.4	6.16	1924.8
12월	3.6(3.6)	3.6(3.6)	3.1(3.1)	6.7	11.5	10.6	6.73	1903.6
2008년 1월	4.2(0.6)	3.9(0.5)	3.3(3.0)		12.5	11.4	6.64	1732.3
2월	5.1(1.5)	3.6(0.8)	3.5(3.0)		13.4	11.6	6.27	1689.5
3월	6.0(2.9)	3.9(1.8)	3.4(3.1)		13.9	11.9	6.13	1651.2
4월	7.6(5.1)	4.1(2.4)	3.2(3.2)		14.9	12.7	5.91	1776.6
5월	9.0(7.1)	4.9(3.2)	3.0(3.2)		15.8	13.1	6.22	1846.8
6월	10.5(8.8)	5.5(3.9)	3.1(3.2)		15.1	12.7	6.68	1858.2
7월	12.5(11.0)	5.9(4.6)	3.1(3.2)		14.8	12.1	6.99	1569.6
8월	12.3(10.7)	5.6(4.4)	3.1(3.2)		14.7	11.8	7.11	1537.5
9월	11.3(10.3)	5.1(4.5)	3.0(3.1)		14.5	12.2	7.46	1446.6
10월	10.7(9.9)	4.8(4.4)	3.0(3.1)		14.2	11.9	7.95	1201.7
11월	7.8(7.4)	4.5(4.1)	3.1(3.3)		14.0	11.4	8.85	1074.0
12월	5.6(5.6)	4.5(4.1)	3.3(3.3)		13.1	10.4	8.35	1114.9
2009년 1월	4.7(-0.3)	3.7(0.1)	3.6(3.3)		12.0	9.2	7.34	1156.4
2월	4.4(0.4)	4.1(0.8)	3.9(3.5)				7.07	1139.8

주: 2) (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구 분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sup>4)</sup>	국내기계 수주 <sup>5)</sup>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공공	민간	
전년동기 대비(%)										
2004년	10.3	80.1	1.1	-2.6	6.8	3.7	-3.9	11.1	4.9	14.8
2005년	6.4	79.7	4.2	1.5	1.5	5.9	7.3	4.1	-3.7	7.5
2006년	8.4	80.0	4.1	6.6	14.3	8.9	9.0	2.6	0.6	4.0
2007년	6.9	80.1	5.3	6.0	19.8	9.2	23.6	6.6	8.4	4.6
2008년	3.0	77.2	0.4	1.4	-4.7	-3.2	-9.0	4.7	6.5	1.7
2006년 10월	4.8	81.4	4.2	2.8	36.2	7.3	-0.2	5.2	17.8	1.3
11월	7.1	80.7	3.6	6.8	14.4	7.7	44.9	4.3	8.4	3.6
12월	2.2	78.8	1.5	3.0	-1.5	4.6	29.8	5.0	8.8	3.7
2007년 1월	8.6	78.5	1.0	10.5	29.2	18.6	18.4	12.9	18.1	11.3
2월	-0.2	79.5	10.6	7.5	20.0	14.5	46.6	9.1	27.0	3.1
3월	3.3	78.8	6.0	6.0	9.3	6.9	38.3	3.0	19.0	-3.3
4월	6.2	78.8	4.0	9.7	3.3	15.6	50.4	7.0	8.4	4.0
5월	5.7	80.5	5.2	8.8	15.6	8.8	9.3	6.2	16.4	1.7
6월	6.6	80.4	3.5	4.7	3.3	11.3	34.0	4.9	11.9	1.2
7월	13.5	80.6	8.9	10.0	35.3	2.2	-13.2	13.2	14.9	10.6
8월	8.8	81.1	5.8	6.0	5.1	3.5	15.6	8.6	5.0	8.2
9월	-3.1	78.6	6.4	-7.1	19.5	-3.7	-9.3	-6.3	-7.3	-6.5
10월	15.9	81.9	6.6	11.8	42.5	7.0	104.6	8.8	-4.6	13.0
11월	7.6	81.0	4.4	3.1	46.7	10.4	48.7	5.9	8.8	2.8
12월	9.4	80.9	2.6	2.9	28.8	10.1	4.3	9.2	3.7	9.8
2008년 1월	11.7	81.3	4.6	9.0	44.4	-1.5	-9.3	10.5	16.5	5.6
2월	10.7	80.2	2.9	2.0	8.3	-2.2	-7.0	3.1	-1.0	2.6
3월	10.5	80.9	4.4	5.4	24.1	1.2	3.6	3.6	5.5	1.0
4월	10.8	81.0	5.4	7.3	17.9	-1.8	-0.5	4.2	2.4	2.6
5월	8.9	80.0	3.0	2.5	3.0	-1.4	16.4	7.5	5.0	5.9
6월	6.8	80.2	-1.0	2.9	6.3	1.8	-23.0	6.6	3.1	5.3
7월	8.3	79.2	3.9	7.2	20.7	8.7	-13.2	8.7	3.2	9.2
8월	1.8	78.4	1.4	-1.4	-3.9	0.1	-8.1	8.3	9.5	5.9
9월	6.3	77.3	-1.8	0.2	-34.3	7.5	-39.8	14.8	6.9	16.7
10월	-1.9	77.3	-3.7	-1.7	-36.5	-7.7	-23.7	5.1	20.4	-3.3
11월	-13.8	68.4	-5.8	-9.3	-43.9	-17.0	-39.3	-1.3	5.7	-7.1
12월	-18.7	62.3	-7.0	-6.4	-38.4	-23.0	30.7	-8.6	3.4	-16.2
1월	-25.6	61.5	14.3	-14.9	-45.0	-25.3	-15.0	2.0	27.7	-9.3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9년 3월 25일

1판1쇄 발행/2009년 3월 31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김종석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0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